

‘조두순재범방지 유일한해법은 보호수용법’...안산시, 전문가정책자문개최

보호수용법 제정 필요성 의견청취 및 실효성 있는 정책 자문

안산시가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실질적인 대책마련을 위해 정부에 제정을 요청한 ‘보호수용법’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은 ‘유일한 해법’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29일 시에 따르면 전날 시청에서 열린 ‘보호수용법 제정 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초청 정책자문 간담회’에서 보호수용법은 유일한 재범방지 대책이라는 데 한뜻이 모아졌다.

간담회에는 윤화섭 안산시장을 비롯해 이수정 경기도 교수와 박경미 변호사가 참석해 보호수용법에 대한 논의 외에도, 안산시가 마련한 다양한 대책에 대한 자문도 이뤄졌다.

최근 윤화섭 안산시장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표 청원해 11만9천 137명으로부터 동의를 얻은 보호수용법에 대해서는 과거 사회보호법과는 전혀 다른 성격의 보호수용법이 유일한 재범방지대책이라는 데 한뜻을 나타냈다. 이수정 교수는 “조두순이 출소한 뒤 집으로 돌아가면 피해자는 이사를 갈 것으로 예상되

는 상황에서 이는 피해자에 대한 배려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재범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는 지금, 보호수용법 외에는 대책이 없어 보인다”고 강조했다. 박경미 변호사도 “어떤 방법을 강구해도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재범을 막아주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보호수용법이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인지 많은 국민에게 알려 충분한 공감대가 쌓인 상황에서 국민적 합의가 있다면 제정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참석자들은 보호수용법이 과거 2005년 폐지된 사회보호법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인권침해 및 이중처벌 논란은 제척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시는 보호수용법 제정 요청에 나서며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한편 조두순 관련 대책 범정부 TF팀 구성, 무단관급 순찰인력 배치, 피해자보호 추진위원회 설치 요청 등 실질적인 대책마련에 힘을 쏟고 있다. 이날 정책자문 간담회 내용을 토대로 시는

대 국민청원과 중앙정부와의 다양한 간담회, 시민과의 대화 등을 통해 조두순 출소 이후 일정한 기간 보호수용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생각한다”며 “조두순 출소 이전까지 구체적인 격리 방안이 마련돼 시민의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그동안 청와



조두순 출소 이전까지 실현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시민의 불안감을 조기에 해소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조두순 주소지 주변 순찰 및 CCTV를 통한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범죄예방환경설계 기법을 활용한 범죄예방 환경 조성에도 나서는 등 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사업을 철저히 추진한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그동안 청와

대 국민청원과 중앙정부와의 다양한 간담회, 시민과의 대화 등을 통해 조두순 출소 이후 일정한 기간 보호수용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생각한다”며 “조두순 출소 이전까지 구체적인 격리 방안이 마련돼 시민의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그동안 청와

성동구, 중1·고1 입학준비금 지원 받 빠른 홍보

성동구, 지원조례안 입법예고 중 2021년 1월 시행, 관내 신입생 4,000여명 대상

서울 성동구는 서울시교육청, 서울시와 함께 내년부터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약 4,000여명의 신입생을 대상으로 입학준비금을 지원한다.

현재 ‘서울특별시 성동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를 입법예고하며 2021년 1월 1일 시행을 위한 발 빠른 행보에 나섰다. 29일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서울시, 교육청은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2021년 신입생들부터 소득에 관계없이 1인당 30만원의 입학준비금을 제로페이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일부 자치구의 교육 구비비 지원, 지역별 상이한 출산장려금 지원 등 자치구간의 차별적인 복지혜택에서 오는 혼란과 복지 불평등 해소를 위해 서울시구정장협의회에서는 지속가능한 복지체계 구축을 위해 ‘복지대타협 특별위

원회’를 구성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정원으로 성동구청장을 단장으로 한 위원회는 일부 자치구의 교복지원 사업을 통일된 기준에 따라 서울 전 자치구로 확대해 시행하기 위해 이를 이끌어 왔으며 마침내 본 사업 공동추진을 결정했다.

당초 서울시는 예산상 등의 이유로 사업 참여가 어렵다는 입장을 보여 교육청과 자치구간의 반쪽자리 사업으로 추진되었으나 정원으로 성동구청장과 위원회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사업의 본래 의미를 살리게 됐다. 정원으로 성동구청장은 “자치구간 상이한 복지 혜택은 주민들간의 불평등을 초래할 뿐 아니라, 자치구간의 선심성·경쟁성 복지비 지출을 초래해 지방정부의 재정에도 큰 부담을 준다”며 “이번 지원결정이 중앙과 지방 그리고 광역과 기초지방정부 간 복지 역할을 조정해야 한다는 복지대타협의 정신을 구현한 사례가 되어 전국으로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김민철 국회의원, 「경기북도 설치를 위한 정책토론회」 국회서 성황리에 개최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국회의원의(정부시절)은 29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경기북도 설치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민회의 전담인 국회에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정치권과 지역정가에도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며, 다수의 국회의원 외에도 지역주민들과 기초지자체장, 지방의회 의원들도 대거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학계 전문가들과 정부 부처 관계자들이 발제자와 토론자로 참여해 어느 때보다 심도 있고 진지한 토론을 이어갔다. 발제자인 대전대학교 허 훈 교수는 ‘경기북도 설치, 한반도 중심 Framing 전략’이란 주제로 경기북도 설치 논의의 정당성과 그 배경을 논리적으로 풀어내었으며, 신한대학교 장인봉 교수는 ‘경기북도 설치의 논리와 추진전략’을 주제로 경기·북부의 불균형 실태를 조망하고 경기북도 설치로 예상되는 효과를 설득력 있게 설명하였다. 지정토론에 참석한 중앙대 박희봉 교수는 경기북부가 분도를 해서 특성에 맞는 별도의 경제발전전략을 실시해야 남북의 격차를 해소해 나갈 수 있다고 주장했고, 지방행정연구원 권오철 교수는, 최종판단은 이해관계의 직접 주체인 경기도민이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역시 지정토론자인 박성호 대동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기획단장은 동법안이 실질적으로 성과를 내려면 법안 통과를 위해 애쓰는 분들이 경기도와 함

께 정책추진체계로서의 거버넌스를 공동으로 만들어 단기적중장기적인 로드맵을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했고, 류인철 행안부 자치분권정책관은 지방자치분권의 폐지분할 절차가 광역자치체의 분할이라는 조우의 상황을 맞이하여 부족한 부분이 많아 법률 개정 수요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경기북도 설치는 1987년 처음 논의되기 시작한 이래 33년간 비슷한 관련 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되었으나 분도 보다는 경기북부지역의 발전을 우선도 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유로 사실상 반대하는 의견이 많아 제대로 된 논의가 지속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이번 김민철 의원의 1호 법안이었던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이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되고 법안 제1소위에서 임법공정회를 열기로 의결되면서 이전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 속에서 경기북도 설치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경기북도를 설치해야 한다는 논의의 이면에는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이 70년간 겪어온 불이익과 불편, 또 그 밑에는 뿌리깊은 차별과 소외감이 가시어 깔려있다고 볼 수 있다. 6.26전쟁 이래 경기북부지역 11개 시군은 접경지역으로서 ‘안보’를 이유로 극심한 규제를 받아왔고,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개발제한과 규제를 중첩적으로 받음으로써 경기 남부에 비해 발전속도가 크게 벌어져 사회 여건이 매우 큰 격차를 보이고 있

는 것이 사실이다. 올해 경기북부 1인당 GRDP(2,401만원)은 경기남부(3,969만원)의 60% 수준이고, 재정자립도(28.2%) 역시 남부(42.9%)에 비해 여러 해 동안 지속적으로 14%p나 낮게 형성되고 있는 것이 경기 남부와 북부의 격차를 웅변하고 있다. 이에 김민철 의원은 경기도민의 뜻을 더욱 상세히 파악할 수 있는 여론 조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한 바 있다.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면 ‘경기북도 설치가 필요하다’는 답변이 46.3%로 ‘설치가 불필요하다’는 답변(33.2%)보다 13.1%p 높게 나와 경기북도 주민들 전체가 경기북도 설치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김민철 의원은 토론회 환영사에서 균형발전·지방자치·지방분권, 경기도 남북 간의 불균형 해소, 경기북부 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 장애 평화통일시대의 준비 등 제반 필요성을 거론하며 ‘경기북도 설치’는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오늘 경기북도 설치를 위한 정책토론회에는 서영교 행안위원장, 안민석 의원, 이명수 의원, 김경협 의원, 이광재 의원, 박정 의원, 조응천 의원, 한병도 의원, 김홍걸 의원, 서범수 의원, 양정숙 의원, 이은주 의원, 김남국 의원, 김희재 의원, 박완주 의원, 양기대 의원, 오영환 의원, 이용선 의원, 이해식 의원, 홍중식 의원, 서삼석 의원 등 여야 가리지 않고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참석하였고, 국회의장실

김영근/기자

김영근/기자

경기북부 발전전략 담은 경기북도에 있다! 경기북도 설치를 위한 정책토론회

2020. 10.29.(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공주시, ‘2020 올해의 SNS대상’ 페이스북·블로그 최우수상

다양한 형태 콘텐츠 통해 시민들과 적극적인 소통 나서

공주시가 한국콘텐츠진흥원협회에서 주최한 ‘제6회 2020 올해의 SNS대상’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페이스북과 블로그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30일 시에 따르면, 이번 대회는 기업과 공공기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개인 등 4개 부문으로 나눠 정량 평가 40%, 심사위원 평가 60%를 합산해 수상자를 선정했다.

공주시는 소셜미디어 부문에서 ‘올해의 페이스북’과 ‘올해의 블로그’에서 최우수상을 잇따라 수상하며 2관왕에 오르는 쾌거를 거뒀다.

특히 시는 올해 코로나19 감염병이 확산되면서 SNS 매체를 통해 확진자와 이동경로 등의 정보를 신속하게 공개하고 각종 방역 수칙 등 시민에게 필요한 정보들을 다양하게 전달해 호응을 얻었다.

또한, 온라인·비대면 활동이 증가하면서 SNS 플랫폼의 역할과 중요도가 커짐에 따라 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SNS 콘텐츠를 제공하는 등 변화되고 있는 트렌드에 적극 대응한 점도 큰 점수를 받았다.

올해 공주시 페이스북 구독자는 5만 2,413명, 블로그는 1만 2,172명으로 누적 방문자는 690만명에 이

다. 이석우 시민소통담당관은 “시민들과의 소통을 위해서는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뉴미디어 환경에서 적극 대응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눈높이에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콘텐츠로 함께 만들어가는 소통 문화를 가꿔가겠다”고 말했다.

고정화/기자



Advertisement for '청정 영양 온라인 H.O.T 페스티벌 2020'. It features images of red chili peppers, a search bar, and promotional text. The festival is held online from September 14 to October 14, 2020, at the Corona 19 hygiene site. Contact information: 054-683-7300.

홍성군, 한 단계 도약한 가족여성친화도시 조성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2학기 등록금 반값지원 다음달 30일까지 접수

‘여성과 가족이 행복한 홍성만들기’ 주력. ‘홍성군 가족센터’ 건립 준비도 착각

홍성군은 지난 2019년 여성친화도시로 재지정된 후 올해 사업 추진 2단계의 첫 해를 맞아 한 단계 도약한 군민체감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28일 밝혔다.

군은 그동안 여성은 물론 노인, 아동,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지역사회 환경조성을 위해 성평등 정책 추진기반 구축 여성의 경제·사회참여 확대 안전하고 편리한 지역사회 구현 가족친화 환경 조성 지역사회 활동 역량강화 등 5가지 영역별로 다양한 사업을 펼쳐왔다.

특히 올해 6월 “2020년 지역성평등지수 평가”에서 최상위 등급에 진입하며 여성친화도시 재지정 명성에 걸맞은 결과를 얻었다.

군은 지난 1단계 사업추진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내포신도시 활성화 및 충남 혁신도시 지정에 따른 새로운 수요를 반영한 2단계 사업 추진으로 통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포부를 밝혔다.

성평등 정책 추진기반 강화 군은 성별영향평가 전문가 컨설팅을 통한 군정 업무 전반에 성인직적 관점을 반영하고 부서평가를 통해 정책 환류 시스템을 강화해나가는 한편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의 참여 확대를 위해 군 소속 위원회의 위촉직 여성위원 비율 및 마을 여성리더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여성의 활동역량 강화 및 경제·사회 참여 확대 올해 지역 특화사업으로 ‘성평등한 도시농업관리사’ 교육 과정을 통해 성인지 감수성을 함양한 도시농업관리사를 양성해 지역 강사를 발굴·육성했으며 기 양성된 아동놀이강사, 양성평등 강사를 관내 어린이집, 학교와 연계하는 등 지역에서 지속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더욱 공고히 다지는 동시에 관내 10개 기업과 여성친화 일촌기업 협약을 맺어 여성의 고용환경을 개선하며 여성친화 기업문화 확산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안전하고 편리한 지역사회 구현 여성 및 1인가구의 안전한 택배수령과 범죄예방을 위한 행복안심 무인택배 보관함 3개소를 설치하고 여성 안심지킴이집 25개소 운영 등 지역사회 안전 인프라를 구축했으며 향후 시민참여단 등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보다 안전한 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역사회 돌봄 생태계 구축 내포신도시 활성화에 따른 젊은 층 인구의 돌봄 수요를 반영해 2018년부터 복합문화공간인 ‘가족센터 건립’을 추진 중에 있다.

홍북읍 신길리 1364번지에 조성중인 가족센터는 지하 1층, 지상5층 건물로 가족도서관, 실내놀이터, 공동육아나눔터 등이 한 건물 안에 위치해 이용 주민의 편의성과 시설 활용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여성가족부 50억원, 충남도 특별조정교부금 25억원 확보 이후 설계용역 최종보고회, 여성가족부 현장컨설팅, 관급자재선정심의회 등 필요한 절차를 추진했으며 현재는

충청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최종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심의를 완료되는 즉시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조달청을 통해 시공사를 선정해 2021년 1월 중순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국 최초 아동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공동육아나눔터를 4개소까지 확대 설치할 계획으로 변화되는 가족구조에 맞는 맞춤형 지역사회 돌봄 생태계를 구축해 “아이낳고 기르기가 좋은 홍성”에 걸맞은 사업 추진에 열과 성을 다하고 있다.

홍성군 관계자는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은 군민과 함께 이뤄낸 결실이며 2단계 여성친화도시는 군민의 일상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 여성이 평등하고 가족이 행복한 홍성을 실현하고 아울러 나라의 미래인 아이들을 낳고 기르기가 좋은 홍성군을 만들기 위해 아동의 생애주기별 복지사업과 가족친화문화를 선도적으로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고정화/기자

‘한·러 수교 30주년’ 경기도-러시아 동반성장 성과 잇따라

러시아 ‘가스프롬’ 5백만불 투자 협약, 도-러 첨단기업 간 기술제휴 협약, 온라인 상담회 개최

원천기술 강국 러시아와의 기술협력 전담기관인 경기 러시아기술협력센터가 한양대 에리카캠퍼스에 문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 지 1년 만에 풍성한 성과를 쏟아냈다.

경기도는 한·러 수교 30주년을 기념해 26일 오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경기러시아 기술협력센터가 지난 1년간 거둔 성과를 소개하는 ‘한·러 수교 30주년 기념 온라인 상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이용철 행정2부지사

와 함께 기술제휴 협약도 4건 체결됐다. 경기도 파벨코퍼레이션과 러시아 폴리텍 대학 간 결합 공정용 스마트 포일 공동개발 협약 경기도 엠젠과 러시아 다바이 오토모티브 간 자동차부품 3차원 검사 장비 공동개발 협약 경기도 에스랩과 러시아 뉴메리칼비전 간 인티페로미터 기반 나노 변위 측정 스테이지 공동개발 협약 경기도 에스엠지 머티리얼즈와 러시아 펠름 간 반도체 공정 고온 히터 공동개발 협약이다.

이용철 행정2부지사는 “오늘 기술협력 성공사례를 만들어낸 4개 기업처럼 더 많은 중소기업이 러시아 첨단기술기업과 협업할 수 있게 되길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경기러시아 협력센터를 통해 경기도와 러시아 기업 간 혁신적 동반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본 행사 후에는 도내 22개 기업과 러시아 18개 기업 간 온라인 상담회가 열려 경기도와 러시아 기업 간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협력모델을 보여줬다.

알렉산드르 마살체프 주한 러시아 무역대표부 대표는 “러시아는 비대면의 핵심인 정보기술, 소프트웨어, 소부장 관련 첨단기술 기업을 보유하고 있고 경기도는 삼성, LG, 현대기아자동차 등에 소재·부품을 납품하는 우수한 상용화 기술을 갖춘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어 양지역 간 협업은 상당한 시너지를 창출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박상찬/기자

도민의 삶의 질 높이는 우수 규제개혁 사례 발표

경상남도가 규제개혁 추진역량을 키워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규제개혁 과제 발굴 보고회’를 29일 개최했다.

박일용 도 기획조정실장 주재로 진행된 이번 보고회는 규제개선 과제 제안 부서장 등 관계 공무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도는 정부의 규제개혁 방향과 연동해 규제개혁의 새로운 체계를 전 부서가 공유할 수 있도록 이번 달 5일부터 16일까지 내부 공모를 실시했으며 총 29개의 과제를 접수받았다. 접수된 과제를 대상으로 1차 내부 심사와 2차 경남도 규제개혁위원회의 외부위원 심사를 거쳐 최종 10건을 선정했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이번 ‘규제개혁 과제 발굴 보고회’를 진행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최우수 3건, 우수 3건, 장려 4건 등 총 10건의 우수 사례에 대한 시상도 이루어졌다.

최우수에는 산업단지정체과의 ‘투자유치 문제가 있었어? 기업이 알기도 전에 해결하기’, 여성정책과의 ‘위기가동 발굴 및 보호 시스템 제도개선 사례’, 정보빅데이터담당관의 ‘자가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한 통신연계 서비스 제공’ 등이 선정됐다.

임상 부서에겐 최우수 각 30만원, 우수 각 20만원, 장려 각 10만원 상당의 경남사랑상품권이 지급되고 하반기 우수부서 선정 시 우대하고

규제개혁 유공 중앙부처 표창 추진 등으로 그 동안의 규제개선 노력에 보상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일용 기획조정실장은 “이번에 발굴된 과제는 중앙부처로 상임법령 개정 사항을 건의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전 부서가 적극 참여하는 지속적인 규제혁신 협업기반을 잘 다져나가 우리도가 전국에서 규제혁신을 선도하는 으뜸도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인용/기자



유희업 시장 “대학생 등록금 걱정 없이 꿈을 펼칠길”

안산시는 다음달 30일까지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지원 2학기 신청을 적극 지원해달라고 28일 밝혔다. 전국 시 단위로는 최초로 올해 처음 시행된 안산시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지원 사업은 교육비 경감과 안산시 교육발전 기여 등에 대해 긍정적 인 평가를 받고 있다.

사업추진 첫 학기인 올 1학기에 학생 912명에게 모두 5억9천여만원을 지원했고 2학기에도 이미 283명에게 학자금 2억5000만원을 지원했다.

2학기 지원대상은 1학기보다 확대된 다자녀가정의 첫째, 둘째를 포함한 모든 자녀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수급 대학생이며 만 29세 이하 학생 본인과 가구원 1인 이상이 함께 공고일 및 지원일 현재 안산시에 3년 이상 거주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지원 금액은 국가장학금 및 타 장학금을 제외한 본인부담 등록금의 절반이며 1학기 반값등록금을 신청했던 학생들도 국가장학금을 사전에 신청하고 접수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접수는 오는 11월30일까지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하면 된다.

유희업 안산시장은 “올해 처음 시행한 등록금 반값지원 사업을 2학기부터는 지원 대상을 더욱 확대하고 접수방법을 개설했다”며 “학생들이 등록금 걱정 없이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정부/기자

“재개발 임대주택 지자체·LH가 매입하도록 의무화해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재개발사업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을 지자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이 매입하도록 의무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대표발의했다. 소병훈 의원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현행법은 재개발사업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을 조합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공공이 매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조합이 요청하지 않으면 조합이 이를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한 뒤 8년 후 분양전환을 통해 매각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며 “공공임대주택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는 재개발사업 시행을 통해 건설된 임대주택을 공공이 매입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교통부는 소병훈 의원실 ‘재개발사업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을 공공에서 인수·운영하도록 의무화해 임대주택의 거주기간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타당하다. 21대 국회에서 관련 내용을 담은 개정안의 재발의를 추진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또한, 서울 시도 ‘조합이 재개발 임대주택을 매각 시도할 우려가 있다. 이를 매각하지 못하도록 법령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병훈 의원은 “작년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한 건설사가 ‘임대주택 없는 아파트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세워 논란이 된 바 있다”며 “재개발사업이 조합과 건설사들을 위한 돈벌이 수단 이 아니라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국민 주거안정에 기여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소병훈을 비롯해 강득구, 강민정, 김승원, 설훈, 신정훈, 양경숙, 오영환, 용혜인, 이성만, 주철현 의원 등 총 11인이 발의했다.

소병훈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소병훈을 비롯해 강득구, 강민정, 김승원, 설훈, 신정훈, 양경숙, 오영환, 용혜인, 이성만, 주철현 의원 등 총 11인이 발의했다.”

최광수/기자

www.wawa105sujin.com **문화매일** facebook.com/wawa105sujin

우편번호: 08333 서울 구로구 개봉로 12길 9-19 105동 201호
 우편번호: 14222 광명시 시청로7 흥신에이스텔 701호

발행·편집인: 최수진 / 부편집: 박상찬 / 사장: 박유석 / 편집국장: 최계은
 청소년 보호 책임자: 최수진

대표전화: 1899-9659 e-mail: ekwk44@naver.com sujn004344@daum.net

2009년 4월 12일 창간 정 차 부: 내선 (112) 문 화 부: 내선 (116)
 2009년 3월 12일 등록번호: 경기.가50079 사 회 부: 내선 (113) 부 동 산 부: 내선 (117)
 본지는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한다 경 계 부: 내선 (114) 오피니언부: 내선 (118)
 대표전화: 1899-9659 스포츠부: 내선 (115) 지 방 부: 내선 (119)
 편집국: 02) 2612-2959
 팩 스: 02) 2060-4147 구독신청·배달안내: 1899-9659 구독료: 월 15,000 1부 800원

전문성 있는 언론인 연수

언론 조사, 분석, 연구

빅데이터를 활용한 혁신 뉴스서비스

뉴스 저작권 보호 및 관리

과학적인 정부광고 집행

전 국민 대상의 미디어 교육

읽기문화 강연회

소외계층 매체 취재, 제작 지원

소외계층 신문 구독료 지원

국민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언론과 국민을 잇는 이음줄이 있습니다

“신뢰받는 언론, 소통하는 사회, 뉴스생태계 혁신을 위해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함께합니다.”

2020 패패부산, 코로나19 극복 위해 하이브리드 전시체계 도입

‘부산국제신발섬유패션전시회2020’ 개최

부산시는 국내 유일의 국제신발·섬유·패션복합전시회인 ‘2020 패패부산’을 오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비스코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생으로 예년과 다르게 10월 29일부터 30일까지는 온·오프라인 비즈니스 상담회, 31일부터 11월 1일까지는 패션마켓으로 이원화해 진행한다.

특히 올해 달라진 점은 코로나19로 대응해 비대면 경제활동에 초점을 맞춰 행사를 진행하는 것이다.

개막식은 온·오프라인 병행한 방식으로 Zoom으로 연결된 20여명의 온라인 참석자와 현장에 참석한 10여명 내외의 주요 관계자와 함께 시작하며 같은 시간 F1963에서 개최하는 ‘한아세안 패션워크’와 라이브 이원중계로 유튜브 채널 송출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참가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스를 무료로 제공하며 디지털, 비대면 시대의 소비 경향을 반영한 라이브커머스 판매 방송을 진행하고 매년 3일간 열린던 행사 기간을 참여기업의 매출성장을 높이기 위해 주말까지 판매행사를 확대해 4일간 진행한다.

‘비즈니스 상담회’는 온·오프라인으로 병행해 이틀간 6건이 진행된다. 상담회에는 154개 기업과 120명의 국내외 바이어가 참여한다. 특히 글로벌 신발바이어 온라인 수출대전에는 일본,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국가를 비롯해 미국, 칠레, 이집트 등 11개국에서 80여명의 바이어가 참여해 부산 기업들과 온

라인 비즈니스 상담회를 진행한다. 국내 유명 신발, 패션 브랜드 기업들을 초청해 지역의 원부자재 기업과 상생을 위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상담회’도 열린다. 지역을 대표하는 세팅, 파크랜드, 풀핑 등을 비롯해 패션그룹 형지, K2, LS 네트웍스, 롯데홈쇼핑, CJ오쇼핑, 인터파크, 쿠팡 등 국내 30여 곳의 기업들이 바이어로 참여해 철저한 방역 속에 지역 기업들과 1:1 대면 상담을 가진다. 개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행사 기간 6건의 라이브 커머스도 동시에 진행된다. 유명 인플루언서와 국내에서 활동하는 중국의 왕홍을 초청해 지역의 패션 뷰티 제품을 동영상 스트리밍으로 국내외에 판매한다.

이번 방송에는 구매력이 높은 20~30대 젊은 층을 타겟으로 트렌디하고 개성있는 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부산시는 국내 전자상거래 대표기업인 NHN고도, 부산섬유패션산업연합회, 한국신발산업협회와 함께 ‘부산 섬유패션 및 신발산업 e-커머스 비즈니스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을 통해 패션산업 업계의 경쟁력을 향상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는 데 힘을 모은다. 주말에는 민생경제 회복과 코로나19 장기화로 피로감이 누적된 시민들을 위한 패션마켓이 열린다. 파크랜드, 트렉스타, 학산 등 지역을 대표하는 기업부터 패션 신진 디자이너, 경력 재개발자, 청년 창업자까지 170여 개

2020 패패부산
PASSION & FASHION BUSAN
2020 부산국제신발섬유패션전
BUSAN INTERNATIONAL FOOTWEAR, TECH-TEXTILE & FASHION FAIR

2020. 10. 29. (목) - 11. 1. 일 비스코

수주상담회
2020. 10. 29. (목) ~ 30. (금)

패션마켓
2020. 10. 31. (토) ~ 11. 1. (일)

주최 |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비스코, 부산국제신발섬유패션산업연합회, 한국신발산업협회, 한국신발산업협회, 한국신발산업협회, 한국신발산업협회
후원 |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비스코, 부산국제신발섬유패션산업연합회, 한국신발산업협회, 한국신발산업협회, 한국신발산업협회, 한국신발산업협회

사가 참여해 판촉행사를 벌인다. 신발섬유 종사자와 시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콘텐츠도 준비되어 있다.

신발커스텀체험, 신발열쇠고리 만들기, 티셔츠 프린팅 등 평소에는 접하지 못하는 이색적인 체험행사와 마술, 저글링, 카테일쇼 등의 다양한 볼거리가 펼쳐진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코로나19로 국내외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신발섬유패션 제조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업계의 매출 증진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궁영기자

목포시, 북항노을공원에서 문화예술 공연 개최

10.29 19시, 목포시립무용단 특별기획공연 ‘춤으로響’

목포시가 북항노을공원에서 오는 29일과 30일 이틀에 걸쳐 가을밤을 아름답게 수놓을 시립예술예술훈의 기획공연을 개최한다.

먼저 29일 19시 목포시립무용단 창단 40주년 특별기획공연인 ‘춤으로響’으로 이번 문화예술 행사의 문을 연다. 한국 전통 무용을 기반으로 한 창작 춤과 민속무를 재구성한 신무용, 창작음악 등을 통해 우리 전통 춤을 현대에 맞게 해석해 관객에게 새로운 문화경험을 선사한다.

30일 밤에는 시립국악원의 공연으

로 신명나는 국악마당이가 펼쳐진다. 오후 6시 30분에 ‘제21회 가을밤의 국악대향연 노을에 취하다’를 주제로 남도민요, 경교춤, 금강산 타령, 판굿, 흥에 취하고 노을에 취하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관객과 함께 노래를 부르며 노는 흥겨운 국악공연이 진행된다. 김중식 목포시장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정서적 무기력과 우울감 빠진 시민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흥을 돋울 수 있는 공연을 준비했다”며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비치, 거리두기 유지 등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일기자

목포시립무용단 창단 40주년 특별기획공연

춤으로響

춤예술감독 박수경

2020. 10. 29. (목) 19:00 북항노을공연

목포시립무용단 창단 40주년 특별기획공연

http://cdae.daum.net/peodance

온·오프라인으로 청소년이 함께 만든 디딤청소년활동센터 청소년어울마당 ‘모여봐요 디딤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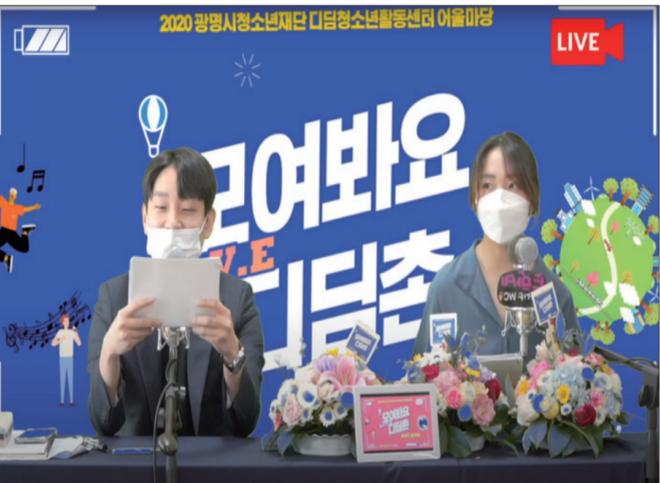
광명시청소년재단 디딤청소년활동센터(센터장 박사라)는 10월 24일(토요일) 청소년어울마당 [모여봐요 디딤촌]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됨으로써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온라인 유튜브 공식채널과 디딤청소년활동센터 문화카페에서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되었다.

첫 번째 순서로 광명시청소년재단 서일동 대표와 디딤청소년활동센터 청소년운영위원회 [오아시스] 위원(김준희, 김재민, 우건희, 정재원, 조수현, 홍하은)은 마을, 환경, 공정무역에 관한 주제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특히, ‘BMW 캠페인에 동참하여 자전거·버스(Bicycle & Bus), 전철(Metro)을 타고 걷는(Walk) 환경실천과 공정무역을 알리며 공정무역 캠페인에 함께 동참하자’고 다짐하였다. 다음은, 청소년 MC(김진서, 최서윤)의 진행으로 마을활동가분들(이종숙, 김혜옥, 정영숙, 정기숙, 지재욱)과의 인터뷰가 진행되었다. 해당 인터뷰에서는 마을활동가분들의 마을활동 경험을 공유하고, 청소년이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자리가 되었다.

이어, 디딤청소년활동센터 청소년 자치기구와의 대화에서는 청소년운영위원회 [오아시스]와 청소년마을활동가(임혜교, 장백은), 청소년동아



리연합회 독서 토론 동아리 세나투스(박이현) 등이 참여하여 청소년이 스스로 기획하고 진행한 활동을 소개하고, 홍보하는 시간을 가졌다.

본 행사를 준비한 디딤청소년활동센터 청소년동아리연합회 박현주 회장(고1)은 “생방송으로 중계되어 떨렸지만 청소년자치기구의 활동을 알

릴 수 있어서 좋았고, 온라인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해서 의미 있는 행사가 되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사회를 맡은 디딤청소년활동센터 청소년운영위원회 조한비(중2) 위원은 “생애 첫 큰 행사 사회를 보면서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고, 앞으로도 다양한 행사에서 사회를 진행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광명시청소년재단 서일동 대표는 “마을 안에서 청소년이 시민으로서 다양한 사회 참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하겠다”고 말했다.

전순희.최정무기자

청주아빠, 슈퍼영웅 모여라

아빠와 자녀가 함께하는 온라인 ‘슬기로운 집콕생활’

청주시가 코로나19로 인해 우울하고 지친 가족을 위해 다음달 21일과 22일 2회에 걸쳐 주말동안 아빠 육아와 일·가정 양립의 일상화를 위한 비대면 온라인 행사 ‘청주아빠, 슈퍼영웅 - 슬기로운 집콕생활’ 체험 프로그램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다음달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참가 신청서를 접수 받아 선착순으로 참가자 50팀을 선정할 예정이다. 참가하고자 하는 가족은 참가신청서를 작성해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서식,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청주아빠, 슈퍼영웅’ 행사는 지난 2017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 아빠와 자녀가 프로그램을 함께하는 것으로 육아에 전념하던 엄마에게는 휴식의 시간을 제공하고 평소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부족했던 아빠에게는 아이와의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준다. 이를 통해 육아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제고함과 동시에 가족 친화적 사회 분위기가 정착되는 데 기여하기 위한 인구정책의 일환으로 실시된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온라인 체험 프로그램으로 편성해 1회 차에는 가구 만들기과 마술 체험 프로그램, 2회 차에는 요리와 마술 체험 프로그램을 계획해 코로나19로 지친 가족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청주시 아빠 육아와 일·가정 양립의 일상화를 위한

청주아빠 슈퍼영웅

1기 2020. 11. 21. (토) 14:00 ~ 16:00

2기 2020. 11. 22. (일) 14:00 ~ 16:00

아빠와 자녀가 함께 집에서 온라인으로 즐기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슬기로운 집콕생활’

신청처: 청주시 주민등록센터, 개인전보계좌번호에서

문의처: 043-293-9077

선사하고자 한다. 또한 체험 프로그램과 함께 온라인 라이브 문화공연을 감상하며 가족 간의 추억을 쌓을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 이번 온라인 청주아빠 슈퍼영웅 행사를 통해 우울하고 지친 청주시민에게 즐거움과

추억을 만들어줄 수 있는 유익한 시간으로 코로나19를 함께 이겨내는 데에 보탬이 될 것 바란다”며 “이를 통해 아빠육아 확대와 일·가정양립 분위기 조성으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창원 강소특구, 창원형 혁신모델 선포

창원은 29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경상남도 주최로 열린 ‘경남 강소연구개발특구 발전방안 보고회’에 참여했다. 이번 행사는 작년 8월 경남 내 강소특구로 지정된 창원, 진주, 김해 3개 지자체와 기술혁신관이 모여 그간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네트워킹의 장으로 구성됐다. 창원 강소특구의 내실화 방안과 특성화 전략을 담은 한국전기연구원의 발표를 시작으로 창원 내 전략기업으로 자리잡을 리치엔타입의 발표가

이어졌다. 한국전기연구원은 지능전기 분야의 다양한 연구 인프라와 세계적인 기술력을 기반으로 스타트업 투자 참여를 양성하고 기존 특구 내 역량있는 기업을 첨단기술 기업으로 전환해 투자유치와 국내외 시장을 창출하겠다는 발전전략을 내세웠다. 디지털트윈 솔루션 대표기업인 ‘리치엔타입’은 경상남도-창원시-한국전기연구원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특구 내 연구소기업을 설립하고 관련 분야 기업의 유치를 이끌어 창원 내 ‘디지털트윈 기반 제조ICT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비전을 밝혔다. 창원 강소특구는 소규모·고밀도 자족형 공간에서 경쟁력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고 그 성과를 지역 전체로 확산시켜 지역 경제 위기의 반전을 꾀하는 혁신의 공간이다. 지난 1년간 창원 강소특구는 창원시와 한국전기연구원의 적극적인 의지와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HVDC시험인증센터, 창원 인공지능 연구센터, 공적혁신 시뮬레이션센터, 제조혁신 선도대학 등 다양한 산업혁신 자원을 특구 내에 집중시키



고 이를 바탕으로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을 가진 연구소기업을 탄생시키는 등 R&D기술사업화 거점 마련을 위해 힘들이 달려왔다. 지난 성과를 디딤들 삼아 한국자동차연구원 중심의 수소산업 육성 클러스터를 특구 내에 조성하고 에너지자립화를 통

한 재생에너지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해 한국판 뉴딜을 선도하는 창원형 혁신모델로서 자리잡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영진 창원시 제1부시장은 “창원의 제조산업 위기를 반전시킬 새로운 동력을 얻기 위해 창원 강소특구가 지정된 지도 1년이 훌쩍

지났다. 그간 특구 내 지능전기 분야의 다양한 연구 인프라 구축과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을 가진 연구소기업의 탄생 등 창원 강소특구의 조기 정착과 기반 마련을 위해 달려왔다”며 “지역 경제 활성화의 선두주자가 될 특구 내 연구소기업 및 창업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도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 발굴과 후속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또한 기업입주 공간 및 배후공간 부족 등 시급히 해결할 인프라구축 문제에 대해서도 조속한 행정절차 이행과 사업추진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정명호기자

부산시와 한국남부발전, 부산 일자리 지키기 위해 협력

‘2020 부산 희망 고용유지 특화업종 지원사업 업무협약’ 체결

부산시는 한국남부발전과 지난 27일 오후 2시 시청 7층 국제회의실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2020 부산 희망 고용유지 특화업종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2020 부산 희망 고용유지 특화업종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고용 여건이 악화하는 상황 속에서도 고용을 유지·확대하는 부산에 있는 전기 관련 업종의 중소기업 중 고용유지 상생협약을 체결한 기업에 4대 보험료 사업장 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한국남부발전은 중소기업 육성자금 1억원을 지원하고 부산시와 부산경제자총협회는 사업의 수행과 홍보를 추진한다.

협약식에는 김윤일 부산시 일자

리경제실장, 맹원호 한국남부발전 조달협력처장, 박주완 부산경제자총협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사업지원 대상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인 미만 부산 소재 전기 관련 업종의 중소기업 중 1년 이상 고용유지 또는 고용을 확대한 기업으로 기업당 최대 3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은 10월 29일부터 사업 신청 전용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변성환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내년 시비를 추가로 확보해 사업의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경제단체, 기업체 등과 상생협약을 체결할 것”이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워진 고용 여건 속에서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남궁영기기자



부산희망 고용유지 특화업종 지원사업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인 미만 부산광역시 소재 중소기업 중 지난 1년간 고용을 유지 또는 확대한 전기 관련 특화업종 기업

근로자 1인당 30만원 X 기업당 최대 10명 지원 (기업당 최대 300만원)

2020년 10월 29일(목) ~ 11월 11일(수)

온라인 신청 (부산경제 홈페이지) www.bsefapp.or.kr

Tel. 070-4157-5523 E-mail. bsenery@bsef.kr

주관기관: 부산광역시, 한국남부발전, 운영기관: KEF 부산경제자총협회

화성시, ‘화성습지 홍보 공모전’ 개최

당선작 ‘2020 화성습지 국제심포지엄’에서 유튜브 생중계

화성시는 화성습지의 생태적 중요성과 화성습지가 가지고 있는 우수한 자연자원의 소중함을 알릴 수 있는 ‘화성습지 홍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화성습지 홍보 공모전은 UCC공모전과 캐릭터공모전으로 접수기간은 11월 2일부터 18일까지이며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이번 공모전 가운데 ‘UCC공모전’은 화성습지의 생태적, 환경적 중요성과 화성습지의 가치를 알릴 수 있는 내용을 담아 23초 분량으로 자유롭게 제작 가능하다. 23초 영화제는 습지보호구역 지정 및 탐사르 협약 등록을 추진하는 매항리 갯벌과 화성호의 면적을 합한 23㎞를 상징한다. 제출 작품의 해상도는 1,280×720픽셀 이상이고 제출형식은 MP4, AVI, WMV, MOV 중 선택해 제출하면 된다. 또한 제작한 영상은 유튜브를 통해 업로드한 후 #화성습지, #화성습지 UCC, #화성습지 알락꼬리마도요 등의 해시태그

를 달아야 한다. 캐릭터공모전은 화성습지에 대표적으로 서식하는 새인 ‘알락꼬리마도요’를 표현한 캐릭터 이미지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양식은 이미지기분형 컷, 응용형 A3 3컷을 JPG, JPEG, PNG 중 선택해 제출하면 된다. 이번 공모전의 응모서류는 화성시 홈페이지 공고/고시에서 다운받아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당선된 작품의 시상식은 오는 12월 1일 열리는 ‘2020 화성습지 국제 심포지엄’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분야별로 최우수상 상금 50만원, 우수상 상금 30만원, 장려상 상금 20만원이 수여 된다. UCC공모전은 일반부와 청소년부로 나눠 시상한다. 또한 당선된 작품은 ‘2020 화성습지 국제 심포지엄’에서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되며 화성습지 관련 리플릿 및 책자 제작, 화성습지 관련 문화행사 전시 등 화성습지를 위한 홍보 자료에 활용된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화성습지의 생태적 우수성을 직접 느끼고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화성습지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남주기자

“슬기로운 소비생활의 시작 강진사랑상품권으로~”



남도답사 일번지 강진사랑상품권

5000

10000

50000

강진군, 모바일·종이형 강진사랑상품권 10% 할인판매

강진군은 코로나19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군민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지난 3월 16일부터 강진사랑상품권을 10%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하고 있다. 또한 4월 1일부터는 제도페이와 연계한 모바일 강진사랑상품권을 추가로 발행해 소비자가 지급 없이 스마트폰으로 연중 24시간 강진사랑상품권을 구매·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소비자의 구매 편의를 증진시키고 가맹점은 수수료 없이 결제된 금액을 3일 이내에 현금화할 수 있어 은행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졌다.

모바일 강진사랑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가맹점은 숙박 및 음식점 약 790여 개소이다.

아직 가맹점으로 등록돼 있지 않다면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대표자가 인터넷 제도페이 홈페이지 또는 강진군청 일자리창출과에 방문해 가맹점 신청을 할 수 있다. 주의해야 할 점도 있다.

지난 7월 2일부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다.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강진사랑상품권과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수취한 강진사랑상품권을 환전하다 적발될 시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진군은 한국조폐공사 상품권 통합관리서비스 도입으로 종이형 강진사랑상품권의 제조·판매·환전 등 상품권 유통의 모든 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다.

이에 시스템상 상품권 유통기준 설정으로 부정 유통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탐지해 효과적으로 감시·추적하고 있다.

이승욱 군수는 “코로나19에 따른 관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 감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침체된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군민들이 강진사랑상품권을 이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장길기자



2020 화성습지 홍보 공모전 UCC 캐릭터 공모전

공모주제: 화성습지의 무한한 생태적 가치를 표현한 콘텐츠 (생태적 우수성, 서식생물 등)

접수기간: 2020.11.02.(목) ~ 11.18.(수)

대상: 화성시 거주민

접수처: 화성시 문화체육관광과

문의: 070-4352-7299

진주시, “WITH 진주 WOMAN UP” 여성친화도시 홍보 동영상 제작

여성친화도시 진주 만들기 시민과 함께 공유

진주시가 여성친화도시 조성 분위기를 확산을 위해 여성친화도시 홍보 동영상을 제작한다고 밝혔다.

‘여성친화도시 진주’ 홍보 동영상은 관내 여성 친화적 관광 명소를 배경으로 노래에 맞춰 안무를 함께 만들어 시 홈페이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 유튜브 등을 활용, 시민들에게 여성친화도시의 의미를 공유하고 여성친화 도시 조성 분위기를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

“WITH 진주 WOMAN UP”이라는 슬로건으로 제작되는 여성친화도시 홍보 동영상은 가수 코요태의 ‘만남’ 곡을 개사해 시청 공무원들이 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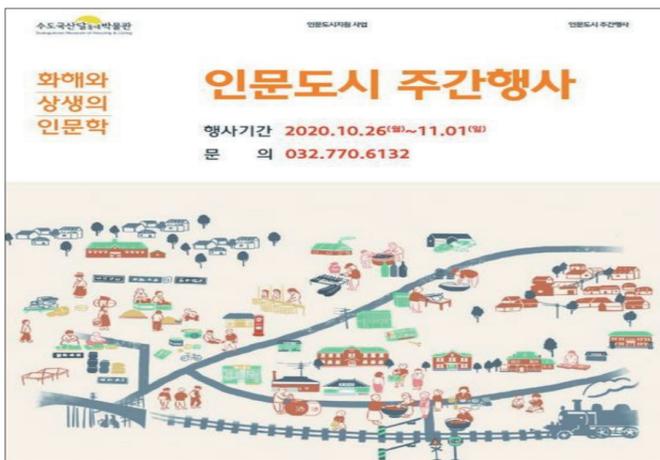
를 하고 진주시 체육회 생활체육 지도자들의 안무 협업으로 탄생 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홍보 동영상에는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과 진주시 체육회 생활체육 지도자가 함께 참여해 ‘보석처럼 반짝이는 여성친화도시 진주와, 돌봄, 안전이 보장되는 문화예술도시, 누구나 행복하고 평등한 진주에서 여성들의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내용으로 만들어진다. 시 관계자는 “홍보 동영상을 통해 시민과 함께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해 여성친화도시 진주를 널리 알려 올해에는 반드시 여성친화도시로 신규지정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정명호기자



인천 동구의 산업 백년사를 알아보는 행사 개최



인문도시 주간행사

행사기간: 2020.10.26(목)~11.01(목)

문의: 032-770-6132

인천 동구는 수도권산탈동네박물관에서 인문도시 주간행사를 지난 27일부터 오는 11월 1일까지 개최한다. 이 행사는 제15회를 맞는 인문주간행사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인천대학교 인문도시사업단과 함께 추진하는 사업이며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인문학의 즐거움을 알려주고자 다양한 교육과 체험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인천 동구의 산업사를 탐방하는 온라인 체험 한마당’을 비대면 방식으로 운영하며 주요 체험으로는 금곡동과 창영동의 옛 모습을 색칠해보는 ‘우리 동네 색칠 놀이’, 1900년대부터 있었던 영화화당과 인천공립보통학교를 꾸며서 냉장고 자석으로 만드는 ‘송이의 신나는 학교탐방’, 다양한 가옥을 표현하는 ‘알록달록한 현이네 집’, 배다리시장에 대해 알아보고

그림일기장을 꾸며보는 ‘달이의 시 골벽적인 시장나들이’ 등이 있다.

체험프로그램은 가정에서 웹페이지의 체험영상을 보고 만들어보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어린이 동반 가족은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현재 인터넷 접수는 마감되어 참여할 수 없으나, 수도권산탈동네박물관 전시실 지하 1층 송림복덕방에서 11월 1일까지 선착순으로 현장접수가 가능하며 재료를 받아 웹페이지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박물관 내 대면 체험프로그램 운영 및 교육 등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 안타깝다”며 “아이들이 다양한 교육 및 프로그램을 온라인 영상으로나마 집에서 쉽게 즐길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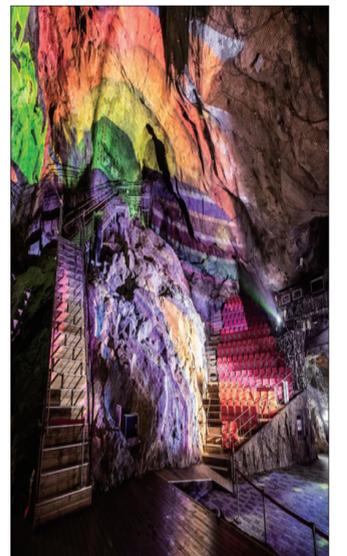
변재현기자

광명동굴, 지역사랑 이벤트 통해 지역 경제·관광 활성화

경기서부권 6개시 입장료 20% 할인, 광명시 학생 무료입장

광명도시공사(사장 김중석)는 정부의 내수 경제살리기에 발맞춰 광명시 관광 활성화를 위해, 오는 11월부터 광명동굴 ▲광명시 학생 무료 입장,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 6개 시 입장료 20%할인, ▲광명동굴 보물찾기 이벤트, ▲도농상생 와인판매 행사를 진행한다. 공사는 경기도 서부권 7개 지자체의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2020년 11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 경기 서부권 부천시, 안산시, 화성시, 팽택시, 시흥시, 김포시 시민들에게 광명동굴 입장료 2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광명시 관내 학교(원) 재학생의 관광 및 문화체험 지원을 위해 오는 12월 31일까지 무료관람을 지원한다. 관람객들에게 새로운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오는 11월 14일부터 12월 13일까지 ‘광명동굴 보물찾기’ 이벤트도 진행한다. 공사 직원들이 제안한 혁신 아이디어를 접목해 광명동굴 내부 곳곳에 숨겨진 보물을 찾는 이벤트로, 보물이 숨겨진 복주머니를 찾으면 다양한 선물을 제공한다. 이밖에 ‘광명동굴 도농상생 와인 판매 행사’를 올 여름 수해 피해를 입은 농가(충북 영동, 단양, 경북 영천, 김천) 지원을 위해 진행한다. 오는 11월 7일부터 12월 27일까지 매주 토, 일 광명동굴 노천카페 앞에서 국산 와인 12종을 시음, 판매한다. 행사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준수하며 운영할 예정이다. 김중석 사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국민들을 위로하고자 다양한 할인 혜택, 볼거리, 즐길거리를 준비했다”

며, “이번 할인 혜택과 이벤트로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상권과 관광산업이 활기를 되찾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광명동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며, 마지막 입장은 오후 5시이다. 매주 월요일은 휴관한다. 방문 고객들은 이용 5대 이용수칙 ▲마스크 착용하기, ▲발열 체크하기, ▲손소독제 사용하기, ▲2m 거리두기, ▲출입카드 작성하기를 통해 더욱 안전하게 관람할 수 있으며, 광명동굴 관람 안내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광명동굴 대표전화(070-4277-8902)와 공사 홈페이지(www.gmuc.c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주유소 - 일반판매소간 경유 거래, 오락실 '똑딱이' 제공 '위법'

김돈곤 청양군수 "당진항 매립지는 충남땅" 대법원 앞 시위

울산시 행정심판위 '주의' 당부

울산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제9회 행정심판위원회를 개최해 식품위생법 위반 등 5건, 정보공개 청구 5건, 장애정도 결정 4건, 게임산업법 위반 2건, 농지법위반 등 일반 사건 11건 등 총 27건에 대해 심리·의결했다고 밝혔다. 울산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이번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할 사건 중 아래와 같이 주의가 요구되는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청구인은 구 동 소재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건설현장 덤프 차량에 경유를 공급해 주고 건설회사의 요청에 따라 일반판매소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는데, 한국석유관리원 단속반에게 적발됐고 구청에서는 '주유소에서 일반판매소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행위'는 주유소의 영업범위 및 영업방법 준수사항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1,500만원 부과 처분을 했다. 청구인은 덤프 차량에 직접 주유했고 대금을 받고 거래처 요청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 뿐인데 법을 위반한 것인지 전혀 몰랐다고 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올해 들어 주유소에서 '석유사업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해 과징금 등 행정처

분을 받고 심판을 청구한 사례가 있었는데 주유소를 양도하는 과정에서 보관 중인 석유제품에 대해 판매소로 이동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폐업하는 주유소에서 경유를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해 구매한 경우가 선박용 경유로 밝혀진 경우 등이다.

일반대리점, 주유소, 일반판매소에서는 석유판매업별 영업 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해 석유제품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행위를 할 경우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고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해 20억원 이하의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울산시 구에서 일반게임제공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A씨는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존의 자동진행장치를 사용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자동진행장치를 개조해 수동으로 사용도록 제공하다 경찰에 적발됐고 불법인지 몰랐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게임물 자동진행장치는 오락실 게임기 버튼을 1초에 수회씩 자동으로 누를 수 있게 하는 장치로 게임의 진행 속도를 빠르게 하고 과도한 금액 투입을 유도해 사행심을 조장한다는 지적을 받아와 정부는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20년 5월 8일부터 '똑딱이' 사용을 금지하

바 있다. '게임산업법 시행령' 제17조 [별표 2]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으로 게임제공업자가 게임물의 버튼 등 입력장치를 자동으로 조작해 게임을 진행하는 장치 또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거나 게임물 이용자가 이를 이용하게 한 경우 '게임산업법 시행규칙' 제26조 [별표 5]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3차 위반 시 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별표 6] 과징금의 금액산정기준에 따라 영업정지에 갈음해 최대 9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시행령 개정 후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약 2개월간 총 141개소에 대한 집중점검 시행 결과, 48개소는 영업을 하지 않거나 폐업했고 나머지 93개소 중 92개소에서 '똑딱이' 제공이 적발됐고 적발되지 않은 1개소 또한 실질적으로 '똑딱이'를 여전히 사용해 온 것으로 판단하며 향후 지속적으로 출입·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울산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울산에서도 게임물 관련 사업자의 자동진행장치 제공 위반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많으며 이는 명백한 법령 위반사항으로 행정처분이 강화된 만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현기자

김돈곤 청양군수가 28일 서울 대법원 앞에서 당진항 서부두 매립지에 대한 충남도 귀속을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

이날 김 군수는 '서부두는 충남 땅, 동부두는 경기 땅'이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2004년 헌법재판소 판결을 보더라도 당진항 서부두 매립지에 대한 충남도 관할권 회복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김 군수는 또 "매립지 관할 결정의 부당성을 알리고 충남 땅을 찾기 위해 시위에 동참했다"며 "관할권 문제를 넘어 자치권 회복과 지방분권 실현이 걸린 문제인 만큼 대법원의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충남도 귀속 시위에는 다음달 6일까지 청양군시장연합회 회원 20명도 동참할 예정이다.

한편 당진항 서부두 매립지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빌미로 지난 2015년 행정자치부가 경기도 팽택시 관할로 일방적인 결정을 내리면서 분쟁이 시작됐다.

충남도와 아산시·당진시는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가 해상경계선에 대해 행정구역을 가르는 행정관습법상의 경계선임을 결정하는 등 공유수면에 대한 지방정부의 권한을 인정했음에도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



라 관할구역 경계를 무시하는 것은 의 심판을 청구해 현재 변론이 진행 그릇된 결정'이라며 2015년 대법원 되고 있다. 에 취소 소송, 헌법재판소에 권한쟁 고정화기자

광주시,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 점검

11월10일까지 위법행위 조치사항, 주민 지원사업 등

광주광역시시는 오는 28일부터 11월 10일까지 자치구와 합동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관리실태를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행정구역 면적 중 48.8%를 차지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의 위법행위에 대한 조치사항 및 사후 관리실태, 주민지원사업 추진 사항 등을 살펴보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관리 적정 여부, 불법 건축물, 무단 토지의 형질변경 등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에서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자진 철거나 원상복구를 계도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또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발 등 행정 조치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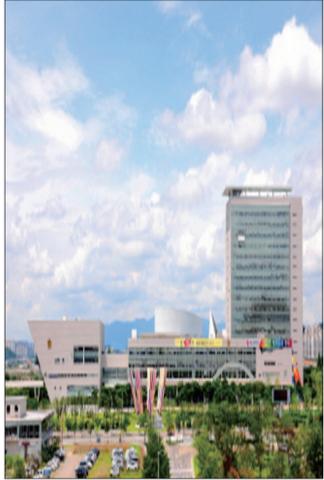
광주시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이번 점검에 20여명을 투입해 서류 및 현장을 교차 점검한다.

이와 관련 올해 9월까지 불법건축 39건, 무단 토지의 형질변경 10건, 무허가 물건적치 등 10건, 총 68건을 적발해 43건은 자진 철거했으며

25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 조치 중이다.

김재식 시 도시계획과장은 "개발제한구역의 과도한 훼손을 수반하는 등 중대한 위법행위에 해당하거나 그 위반성격이 상습·고의적인 경우 시정명령없이 즉시 고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 불법행위를 근절 하겠다"고 말했다.

김덕윤기자



고흥군,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 예방 현장 실태점검 실시

고흥군은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군 발주 13개 주요 사업에 대한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 예방 현장실태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현장 확인평가 차원에서 군에서 추진 중인 사업비 5억원 이상 30% 이상 공정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행정, 시설, 건축 등 전문 인력이 참여한 가운데 6개 분야에 대한 실태를 점검했다. 점검받은 설계도서 및 관련 기준 적정 시공, 외관과 기능적 상태 등 부실시공, 기타 안전사고 예방과 현장 관리 실태 등 전반을 살폈다. 점검결과 미흡한 시공 및 품질 13건, 안전 14건, 환경 등 3건에 대해서는 보완 및 정비 등 현지시정 조의 조치를 했으며 발주부서의 검토가 필요한 10건에 대해서는 반영 건의 했다. 군 관계자는 "철저한 품질관리와 설계서에 의한 건설시공으로 부실 공사를 사전예방하고 안전관리 실태 등 문제점 개선을 위해 건설현장 점검을 해오고 있다"며 "앞으로 현장 관리자의 경각심과 책임의식을 높여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만기자

감사원, 익산시의원 제기 의혹 '문제 없다' 결론

의정활동 명분 삼아 무분별한 의혹제기로 행정불신·시민불안 초래

익산시의회 일부 의원이 제기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를 통한 조사 결과 전체가 모두 기각 처리됐다.

의정활동을 명분 삼아 각종 의혹을 제기하는 것도 모자라 무려 15건에 대해 감사원 감사청구를 하며 행정 불신은 물론 공무원들의 대시민 서비스 제공에 차질을 준 행동을 일삼은 해당 시의원에 대한 비판과 대시민 사과 필요성이 제기된다.

김성도 환경안전국장은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 공익감사 결과와 임형택 익산시의원이 제기한 15건의 음식물쓰레기 처리 과정 관련 감사청구를 모두 기각 처리했다고 밝혔다. 우선 감사원은 임 의원이 제기한 재료비 과다지급 문제에 대해 시가 산정한 재료비 4억2천757만원은 음식물쓰레기 반입량의 6%를 적용해 적법하게 산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2016년 업체와 최종 계약한 금액의 단가는 11만1천460

원으로 용역 결과를 토대로 재산정된 금액인 11만 9천137원보다 7천 677원 적게 계약했기 때문에 재료비가 부당하게 과다지급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업체가 제출한 대기방지시설 높이를 낮추는 시설개선계획을 익산시가 부당하게 수리함에 따라 2017년 12월 이후 단 한 차례도 지적받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기각했다. 감사원은 악취방지법에서 악취배출구가 높이 5미터 이상이면 일정 배출구에서 시료를 채취하고 그 외는 부지경계선에서 채취하게 돼 있어 높이가 낮아졌다는 사실만으로 법령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연구용역에서 음폐수 처리단가가 통당 1만4천806원으로 산정됐으나 실제 통당 5천478원만 징수해 특혜를 줬다는 내용은 2019년 원가산정 연구용역 결과를 비교해 설명했다. 2019년 원가산정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2017년, 2018년 음폐수 처리단가가 원가보다 낮은 대신 약품비는 원가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결과적으로 원가의 83.9%에 처리단가를 체결했기 때문에 업무처리가 위법하고 부당하

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감사원은 독점·특혜 목적으로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신설 허가, 하수찌꺼기 감량화사업 변경 부적정 의혹 등 12건에 대해서도 위법·부당·특혜의혹으로 보기 어렵다며 종결 처리했다. 임 의원은 감사청구에서 마치 익산시가 특정업체에 신설 허가를 위해 부당한 압박까지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행정 불신을 극대화시키는 등 해당 공무원들에게 큰 상처를 안기기도 했다. 익산시는 무분별한 의혹 제기는 물론 행정불신, 공무원들의 사기저하, 공무원들의 피감활동으로 인한 시간허비 등 수많은 문제를 야기한 임 의원에 대해 이번 사태에 대한 공식해명과 공식사회에 대한 사과, 대시민 사과를 촉구했다. 김국장은 "임 의원이 제기한 모든 혐의에 대한 의혹과 부당 특혜는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종결처리됐다"며 "개인 SNS를 이용한 악취문제 등 무분별한 의혹제기로 열심히 일해왔던 공무원에게 큰 상처를 입힌 것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입장표명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선수기자

감동양주
신성장·새지평

함께하는 감동양주

NEW & NEW

새로운 도약, 신성장 활력도시

양주시

강서구,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2020 자치분권 토크 콘서트' 개최

자치분권이 뭐까?

서울 강서구는 우리의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2020 강서구 자치분권 토크 콘서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10월 29일은 '지방자치의 날'로 지방자치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그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2012년에 법정기념일로 제정됐다.

1991년 지방의회 선거와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시행되면서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하고 진정한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25년이 되어가지만 지방자치, 자치분권이 낯선 것이 사실이다. 구는 '지방자치의 날'을 기념해 어렵고 딱딱한 자치분권을 전문위원과 구 대표들의 대화로 풀어내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 '2020 강서구 자치분권 토크 콘서트'는 10월 29일 오후 3시에 강서구청 유튜브브 i강서TV에서 온라인으로 시청할 수 있다.

전문 사회자 김현욱 아나운서 진행으로 정진현 대통령속속 자치분권

위원회 전문위원과 강서구 주민대표가 함께 참여해 자치분권에 관해 '우리 동네와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쉽게 접근하고 풀어내고자 한다. 정진현 전문위원은 자치분권이 잘 이루어진 사례를 통해 자치분권 개념의 이해를 돕고 강서구 대표들이 자치분권에 대해 궁금했던 질문에 대해서도 답변한다.

또한 참석자들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주거, 일자리, 육아 등을 키워드로 '자치분권으로 일자리 문제 해결이 가능할까?', '자치분권으로 변화될 교육환경' 등 자치분권이 가져올 변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이번 토크 콘서트는 자치분권 Q&A 시간을 통해 자치분권에 대해 궁금했던 사항도 댓글로 물어보고 함께 소통할 수 있다. 노현숙 구청장은 "이번 토크 콘서트의 주제는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이다"며 "주민이 주인이 되는 자치분권의 핵심 가치를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2020 강서구 토크 콘서트 자치분권
2020. 10. 29. (목) 오후 3시 온라인 생방송

참여대상 강서구 주민 누구나
참여방법 구 홈페이지 유튜브 채널 접속 시청
내용 키워드 자치분권, 기사·이슈로 보는 자치분권, 자치분권 Q&A

구분	시간	내용
개회	15:00-15:05	3' 개회
개회식	15:05-15:10	3' 인사말씀(온라인 영상)
토크 콘서트	15:10-16:50	100' 자치분권 개념 이해, 생애주요 이슈, 자치분권으로 일자리 문제 해결, 자치분권으로 변화될 교육환경, 자치분권으로 육아 문제 해결, 자치분권으로 주거 문제 해결, 자치분권으로 문화 문제 해결, 자치분권으로 복지 문제 해결, 자치분권으로 안전 문제 해결, 자치분권으로 환경 문제 해결, 자치분권으로 관광 문제 해결, 자치분권으로 도시 문제 해결, 자치분권으로 교통 문제 해결, 자치분권으로 에너지 문제 해결, 자치분권으로 정보통신 문제 해결, 자치분권으로 미래 문제 해결
자치분권 토크 콘서트	16:50-16:55	5' 홍보 동영상 상영
소감 나누기	16:55-16:59	4' 마무리 소감 나누기
폐회	16:59-17:00	1' 폐회

문의 협치분권과 02)2600-6165

홍성명동상가, 할로윈 리어카 데이 개최

명동상가 할로윈 리어카데이
명동상가 대표브랜드 **최대 80% SALE**

EVENT 행사일정
일시 2020.10.30(FRI) ~ 31(SAT) 11:00~19:00
장소 명동상가일원

EVENT 행사내용
롤릿이벤트 / 춤비퍼포먼스 / 할로윈사랑나눔

명동상가만의 다양한 매력을 볼 수 있는 할로윈 리어카 데이 개최

홍성 대표 상점가인 명동상가에서 오는 30일부터 31일까지 양일간 할로윈데이를 맞아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리어카데이를 개최한다. 명동상가상인회에 따르면 지난 달 첫 선을 보였던 리어카 데이는 리어카 형태의 매대에서 다양한 브랜드의 제품을 한 번에 판매하는 것으로 소비자는 물론 상점가들의 큰 호응을 얻어 이번 할로윈 데이를 맞아 다시 한번 개최하게 됐다. 이번 할로윈 리어카 데이에는 명동상가를 대표하는 20개 브랜드가 참여하며 리어카에서 쇼핑한 고객을 대상으로 소정의 경품과 함께 롤릿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또한 할로윈 데이를 맞아 춤비 퍼포먼스를 준비했으며 할로윈 데이의 상징인 사탕 나눔도 준비했다. 김병태 회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코로나19로 침체된 상점가에 활기를 불어 넣고 많은 분들이 명동상가에 방문하셔서 실속있는 쇼핑을 물론 다양한 볼거리를 즐기기도 만끽하셨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홍성군 관계자는 "주민들이 할로윈 데이를 즐겁게 보내고 침체된 상점가 거리가 활성화되기를 바라며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됐지만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상인분들과 찾아주시는 방문객들의 철저한 방역사항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고정화기자

성동구, '살곳이 달빛 자동차극장' 연장 운영

성동구 지난 18일까지 운영했던 '살곳이 달빛 자동차극장' 연장 운영 결정

서울 성동구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심리적 방역 일환으로 지난 9일부터 18일까지 살곳이 체육공원 내 운동장에서 '살곳이 달빛 자동차극장'을 운영해 구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에 구는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3회 연장 운영을 결정했다. 10월 30일 '토이스토리4' 상영을 시작으로 31일에는 '도리를 찾아서', 11월 1일은 '미니언즈' 등 전 연령층이 즐겨 볼 수 있는 영화를 상영한다. 영화 관람료는 '무료'이며 차량 150대를 사전예약 받고 취소분 및 추가 수용 가능분에 한해 당일 현장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예약은 성동문화재단 및 성동구청 문화체육과에

서 가능하다. 아울러 관람객의 편의를 위해 오후 6시부터 영화 종료 시까지 운동장 내 주차료는 면제된다.

한편 자동차극장 운영본부에 손소독제 및 체온계를 비치하고 구급차가 대기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한편 살곳이 체육공원 내 운동장 방역을 매일 실시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을 원칙으로 극장을 운영하기 때문에 음료, 주전부리 등 먹을거리는 직접 준비해야 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쳐있던 많은 구민들에게 살곳이 자동차극장 운영을 3회 추가 연장했다"며 "영화를 관람하시는 구민들께서 가족과 함께 가을밤 즐거운 추억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백제 금동관이 경기도 화성시에서 발견된 까닭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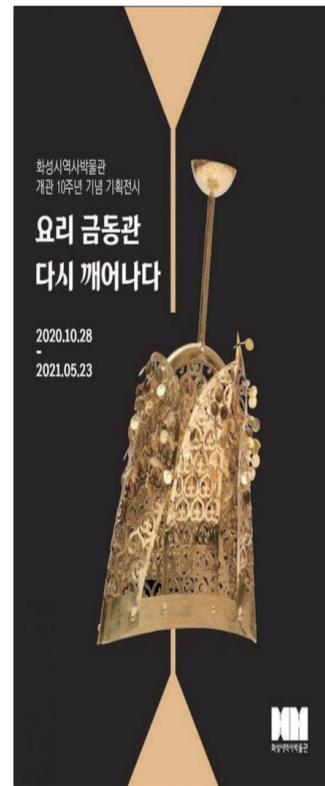
화성시 향남읍 오리에서 발굴된 백제 금동관과 금동신발 주제

화성시 역사박물관이 개관 10주년을 기념해 '오리 금동관 다시 깨어나다'를 주제로 기획 전시를 준비했다. 지난 2014년 경기 지역에서 유일하게 발견된 큰 주목을 받았던 향남읍 오리 유물들을 직접 눈으로 만나볼 수 있는 기회이다. 박물관은 이번 전시에 금동관이 어떻게 발견됐는지, 금동관이 발굴된 요리고분군과 인근 유적들을 함께 소개하고 백제의 금동관이 요리에 묻힌 까닭과 금동관의 주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의 비밀을 풀어가는 과정을 담았다.

특히 유물발굴 현장을 기록하는 방법부터 발굴, 보존, 복제 등 다양한 고고학 활동들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어 진료를 고민하는 청소년들에게도 좋은 전시가 될 전망이다. 기획 전시는 28일 시작해 2021년 5월 23일까지 진행되며 요리고분군에서 출토된 금동관과 금동신발, 금귀고리, 구슬, 토기, 금속유물 50여 점과 양감면 사창리고분군과 향남읍 길성리토성 등에서 출토된 유물 등 총 100여 점을 감상할 수 있다.

신관식 문화유산과장은 "유물 전시를 어렵지 않게 더 가까이 이해하고 느낄 수 있도록 기획했다"며 "이례적으로 발견된 오리 금동관이 가지는 의미를 통해 우리 시의 위상과 역사적 가치를 느껴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남주기자



STICKER

네임스티커 & 각종 홍보판촉 스티커

전제품이 특수 방수 코팅 되어있어 컵이나 식기류에 붙여도 번지거나 떨어지지 않습니다. 어린이용품은 물론 각종 생활용품, 홍보물에도 활용하시기 좋습니다.

TOPPER

기쁜날 감동을 두배로 케이크토퍼

기념일 축하, 여행 감상사진, 기업홍보, 이벤트에 빠질 수 없는 케이크토퍼 토퍼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이천시, 2020 경기 First 공모 2년 연속 최우수상 쾌거

경기마음건강 케어팜 조성사업 50억 확보

총 600억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두고 열린 '새로운 경기 정책공모 2020, 경기 First' 에서 이천시 '땅으로 치유하는 경기마음건강케어팜 조성사업'으로 2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 50억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받게 됐다.

최우수상을 받은 '땅으로 치유하는 경기 마음건강 케어팜 조성사업'은 현재 이천시 장호원을 진압근린공원 인근에 농업과 복지가 결합한 경기도 최초의 공공형 치유농업시설을 건립해 경기도민의 마음건강을 책임지겠다는 의지와 우한교민을 적극적으로 포용한 이천 남부

권 주민의 따뜻한 마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심사위원단의 공감을 이끌어 냈다. 경기 마음건강 케어팜의 전체 사업비는 약 170억원으로 시는 이번에 확보한 특별조정교부금 50억원에 시비 120억원을 투입해 2022년까지 공사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며 추가로 국비 확보를 위해 내년 4월 균형특별사업 교부금 지원에 도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기 First는 경기도가 추구하는 공정, 평화, 복지에 부합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시군에 특별조정교부금 총 600억원을 공개경쟁을 통해 지원하는 사



업이며 이천시는 일반 규모 분야에 도전해, 지난 9월 11개 시군 중 7개 시군이 선발되는 예선 심사를 통과한 데 이어 이날 본선에서 최우수상을 거머쥐었다.

이로서 이천시는 치유농업이라는 대한민국의 복지 선도모델을 구현하는데 탄력을 받게 됐으며 사업이 완료되면 장호원을 비롯한 이천시 전역의 복지서비스 향상, 일자리 창출 등 직접적인 효과와, 주변 농업인과의 다양한 연계사업으로 지역경

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태준 이천시장은 "경기도 핵심가치인 '공정, 평화, 복지'를 구현하는 경기도 최대 규모의 공모에서 2년 연속으로 최우수상을 받게 되어 무척 영광스럽다"며 "부족한 시 예산만으로 채우기 어려운 중요한 사업들을 중앙이나 도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공모에 도전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상찬/기자

안양천서 힐링하세요...영등포구, 비대면 걷기 챌린지

다음달 15일까지 안양천 수변생태순환길 걷기 챌린지... 스마트폰으로 참여 가능

영등포구가 다음달 15일까지 안양천 수변생태순환길에서 '코로나19 극복 서울걷길, 영등포구 비대면 걷기 챌린지'를 진행한다. 구가 주최하고 영등포구체육회와 영등포구육상연맹이 함께 주관하는 본 챌린지는 지난 26일부터 시작되어 오는 11월 15일까지, 3주간 푸짐한 경품과 함께 이어질 예정이다. 참가자들은 각자 편한 시간에 스마트폰을 지참하고 도립천에서 안양천을 거쳐 여의도 한강변으로 이어지는 안양천 수변생태순환길을 방문, 3km 걷기 목표를 달성하면 된다. 목표를 달성한 선착순 1000명에게는 1인당 1만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이 주어진다. 참가자 중 최다 걸음 수 달성 최고령자 최연소자 등을 선정해 별도로 소정의 상품을 증정하며 영등포구체육회 커뮤니티에 인증사진 업로드 시 추첨을 통해 3만원 상당 모바일 상품권을 증정한다. 본 챌린지는 스마트폰을 소지한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 방법은 '워크온' 앱을 설치 후 접속해 '영등포구체육회' 커뮤니티에 가입한 뒤 신청하면 된다. 참가자들은 반

참여기간	2020.10.26 ~ 2020.11.15 (3주간 진행)	주최	영등포구
참여대상	영등포구 주민	주관	영등포구체육회 영등포구육상연맹
참가코스	안양천 수변생태순환길 내 3km 이상 걷기 (도립천~여의도) ※편도만 허용 (왕복은 앱에서 인식 불가)	후원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체육회 영등포구보건소
참가방법	워크온 앱 설치 후 회원가입 (신청)		
참가비용	별첨지달성 시	1만원 상당 기프티콘 지급	
	시상(달성자 중)	최다걸음수(남,녀)	1등 10만원 상당 모바일상품권 2등 7만원 상당 모바일상품권 3등 5만원 상당 모바일상품권
	최연소자(남,녀)	최연소자(남,녀)	10만원 상당 모바일상품권 10만원 상당 모바일상품권
	경품(달성자 중)	영등포구체육회 커뮤니티에 인증사진 업로드 시 추첨을 통해 3만원 상당 모바일상품권 지급	

※온라인 신청 시 '워크온' 앱을 설치 후 접속해 '영등포구체육회' 커뮤니티에 가입한 뒤 신청하면 된다. 참가자들은 반

드시 '워크온' 앱을 실행시킨 상태에서 걷기를 진행해야 한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며 누적된 주민들의 피로감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이번 걷기 챌린지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며 "안양천 산책을 통해 자연을 느끼고 힐링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현일/기자

마포구, 코로나19 피해 농가 지원 '전화주문 직거래장터' 마련

마포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어려움에 처한 농가를 돕기 위해 다음달 2일까지 '비대면 전화주문 직거래 장터'를 진행한다. 구가 지난 8월과 9월 추석을 앞두고 진행한 비대면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가 코로나19 우려로 오프라인 장보기를 꺼리던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바 있어, 이번 직거래 장터도 많은 이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26일부터 시작된 비대면 전화주문 장터에는 마포구와 자매결연 지역인 전북 고창군, 충남 청양군, 전남 신안군, 경북 예천군, 전남 곡성군을 비롯해 강원도를 포함, 총 5개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다.

판매 품목으로는 고춧가루, 절임배추, 고추장, 된장, 건표고 사과 등 총 11개 특산물과 농산물이 준비됐으며 시중가보다 최대 30%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특히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두고 김장재료를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고창·청양·신안 고춧가루와 고창 절

임배추 및 신안 배추김치를 판매 품목에 포함시켰다.

구매를 희망하는 사람은 마포구 누리집 또는 16개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홍보물을 통해 판매 품목을 확인한 뒤 마포구 지역경제과로 전화 주문하면 된다.

판매자는 전화를 통한 주문이 접수되면 산지에서 직접 구매자에게 물품을 배송하게 된다.

구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올해 새롭게 비대면 방식으로 추진한 직거래 장터를 통해 생산자에게는 판로 확대의 기회를 제공하고 구매자에게는 시중가보다 저렴한 가격의 신선한 농·특산물을 제공하는 1석2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믿을 수 있고 우수한 품질을 자랑하는 각종 농산물을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기회이니 김장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비롯한 많은 주민 여러분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조상순/기자

나만의 환경 달력으로 푸른 지구 만들어요

강동구, 초·중·고등학생 비대면 환경교육 '푸른 지구 드림' 운영

강동구가 초·중·고등학생 대상으로 비대면 환경교육 프로그램인 '푸른 지구 드림'을 운영한다. 기후위기 시대, 청소년들이 환경에 관심을 기울이고 일상에서 녹색생활을 재미있게 실천할 수 있도록 마련한 사업이다.

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 교육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그린리더 환경강사의 교육영상과 환경달력 등 교구를 학교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환경 달력에는 4월 22일 지구의 날, 6월 5일 세계환경의 날 등 열두 달에 있는 환경기념일이 표시돼 있다. 달력을 통해 환경기념일의 의미를 알아보고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지구를 생각하는 기회를 갖는다. 또, 불끄기, 손수건 사용, 계단 이용 등 환경보호 실천 다짐 스티커 붙이고 해당 날짜에 직접 실행하기, 환경실천 피켓 만들기, 자원순환 재활용 캠페인 등도 체험해 볼 수

있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학생들이 지구를 살리기 위한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는 것

최광수/기자

사용이 편리한 「나주사랑카드」 상품권 출시

- ▶ 발행시기 : '20.9.1.부터
- ▶ 발행종류 : 충전식카드

- ▶ 카드신청 - 한국조폐공사 앱(chak) - 관내 농협 방문 ※ 스마트폰, 신분증, 계좌번호
- ▶ 충전한도 : 월 70만원
- ▶ 사용처 : 나주사랑상품권 가맹점

- ▶ 좋은점 - 사용자에게 10% 할인 - 직장인 소득공제 30% - 휴대폰에서 충전가능 등
- ▶ 문의처 : 일자리경제과 ☎ 339-8822

2020 안동시 도시재생 포럼 개최

“도시재생사업의 사후관리방안”중점 논의

안동시는 오는 30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안동시 도시재생지원센터 2층 세미나실에서 '2020 안동시 도시재생포럼'을 개최한다.

“도시재생사업의 사후관리방안”을 주제로 하는 이번 포럼에는 도시재생 관련 전문가와 공무원, 공공기관 관계자, 일반시민 등이 참여한다.

이번 포럼에서는 도시재생사업의 추진현황과 성과를 민관이 함께 공유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모색한다. 특히 2020년은 중구동 사업이 마무리되는 해인만큼 도시재생사업의 지속가능성과 사후관리방안에 대해서 중점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포럼은 1부, 2부로 진행된다. 1부에서는 이강희 중구동 사업 총괄코디네이터가 중구동 도시재생사업 추진현황을 설명하고 한국토지주택연구원 박미규 박사와 이주립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교수가 각각 “도시재생사업 모니터링 및 지속관리방안”, “도시재생거점시설의 지속가능관리방안”에 대한 주제로 발표를 한다. 2부는 도시재생사업의 사후관리방안을 주제로 안동시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을 비롯한 패널 5명의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안동시 관계자는 “이번 포럼이 도시재생사업의 사후관리방안을 민관



이 함께 고민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재생의 비전을 제시하는 장이 되기 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영호/기자

김해시민교양강좌 노규식 박사 초청 온오프 개최

‘코로나시대 아이 잠재력 높이는 부모 되기’ 주제

김해시는 오는 11월 16일 오후 2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SBS ‘영재발굴단’ 멘토로 활약했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노규식 박사를 초청해 제350회 인택트 시민교양강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강좌 주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내 아이 잠재력 높이는 부모 되기’로 코로나로 인한 교육 현장과 가정에서 자녀의 변화에 현명하게 대처하고 두뇌 잠재력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 강연한다.

특히 이번 강의는 유튜브 채널 ‘김해시 평생학습관’에서 실시간 송출되며 현장 참석자뿐 아니라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서도 학부모의 궁금한 부분을 해소해주는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다.

김해 출신인 노규식 박사는 tvN ‘문제의 남자’,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두뇌 교육과 육아 자문이 역할을 맡고 있으며 최근에는 ‘슬기로운 부모 생활’이라는 콘텐츠 제작, 유튜브 구독자와 소통하고 있다.

김해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현장 참여 신청은 11월 2-13일 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된 링크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전화로 하면 된다. 유튜브는 실시간



시청만 가능하며 행사 당일 유튜브 채널 ‘김해시 평생학습관’에 접속하면 된다. 남궁영/기자

의성군, 댕댕이와 함께하는 경상북도 펫데이 행사 개최

의성군은 경상북도 주최 하에 오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3일간 의성 펫월드, 사촌마을 일원에서 댕댕이와 함께하는 경상북도 펫데이 행사를 개최한다. ‘매너가 개린이를 만든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반려견 유명강사 특강, 반려견 교육, 독 스포츠, 스토리텔링 산책, 펫투어 등 반려견과 함께하는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 있다. 특히 메인 이벤트인 펫투어는 반려견을 동반해 의성 대표 관광지 사촌마을을 둘러보는 이색적인 프로그램으로 반려인들에게 보다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공식 프로그램 외에 볼거리, 즐길거리, 먹을거리도 다양하다. 버스킹 공연, 플라마켓, 인증샷 이벤트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관광객을 기다리고 있으며 펫월드 내 카페와 푸드트럭에는 아이들의 입맛을 사로잡는 다양한 먹거리가 준비되어 있다. 참여는 온라인을 통한 사전신청 및 현장접수로 이루어지며 의성펫월드 입장 규정상 행사 기간 동안 체고 40cm 미만의 중소형견만 참여가 가능하다.



에서도 반려인들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아이디어를 구상 중에 있다”며 “전국 최대 반려견 테마파크인 의성 펫월드에서 사랑하는 반려견과 함께 행사도 즐기고 사진도 찍으며 즐거운 추억을 남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몽호/기자

경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힘내라 고3’ 이벤트 실시

수험생, 학부모, 선생님 모두 힘내세요

경주시 보건소는 지난 19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3주에 걸쳐 수능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고3 수험생을 응원하기 위한 ‘힘내라 고3’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이벤트는 2가지로 실시되는데, 첫 번째는 수험생 본인과 친구, 가족에게 응원 메시지를 보내는 것으로써 경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홈페이지 ‘커뮤니티’ 이벤트 게시판에서 참여하면 된다.

두 번째는 경주시 지역 내 고3 수험생과 담임 선생님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학습·그룹 별로 동영상 촬영해 SNS에 게시해 참여할 수 있다.

아울러 보건소는 코로나19로 인한 불안, 우울, 스트레스를 겪는 경주시민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지수 등을 검진하는 ‘우리 동네 마음 검진소’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경주시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경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홈페이지 ‘커뮤니티’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온라인 자가 검진 후 참여 소감을 작성하면 된다.

최재호 보건소장은 “이번 이벤트를 통해서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지친 수험생과 학부모, 교직원 모두가 힘을 내고 스트레스를 잘 관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거창군, 향노화힐링랜드 내 건강계단 설치

건강수명의 지름길, 일상 속 건강계단 이용

거창군은 동부권역 향노화 관광의 중심지인 우두산 향노화힐링랜드 내에 일상 속 걷기운동 실천 장려를 위한 건강과 힐링 주제의 건강계단을 조성했다고 28일 밝혔다.

조성 구간은 수월산장에서 산림치유센터 주차장으로 가는 길목과 산림치유센터에서 Y자형 출렁다리 입구까지이며 칼로리 및 수명, 건강, 영양, 힐링의 4가지 테마 문구와 거창의 주요 관광 명소 홍보에 이미지를 랩핑해 유익한 건강생활실천 정보를 제공하고 신체활동을 독려할 뿐만 아니라 관광 명소 홍보에도 활용코자 했다. 계단 걷기는 짧은 시간 동안 근력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할 수 있어 하체 근력 향상과 관절염을 예방할 수 있으며 규칙적인 걷기는 모든 사망위험 감소, 비만 위험 감소, 암 및 심뇌혈관 질환 위험 감소 효과뿐만 아니라 정신건강과 인지 기능 향상에도 효과가 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새로운 일상 속에서 걷기는 누구든지, 언제, 어디서나 실천할 수 있는 신체활동이자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실천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운동이다. 이에 군은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다양한 걷기 환경 조성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많은 방문객들이 수려한 자연환경 속에서 건강계단을 걸으며 여유와 건강을 되찾길 바라며 앞으로도 신체활동 활성화와 걷기실천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송인용/기자



최우수 ‘하수처리장 회야하수처리장 민원해결’ 등 5사례 시상

울산시는 10월 28일 오전 10시 10분 분관 7층 행정부시장실에서 ‘2020년 울산광역시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식’을 개최한다. ‘2020년 울산광역시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시민 체험형 혁신성과 창출 및 공유·확산을 위해 추진됐다. 지난 9월 17일부터 9월 22일까지 시청 내 부서 및 사업소로부터 우수사례를 접수받아 온라인투표와 서면심사 등을 거쳐 총 5개의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이날 시상식을 갖게 됐다. 최우수 사례에는 하수처리과 ‘하수 처리 민원 관련 울산시의 1석 3조 행정혁신’이 선정됐다. 이 사례는 회야하수처리장 증설사업 반대 주민 이주대책 마련 및 낙후지역 단조성, 하수 발생지역인 양산시와

공공하수도 사용협약 체결, 회야하수처리장 저기중공으로 양산시 웅산지역 하수처리 갈등을 해소했다. 우수 사례에는 문화예술과의 ‘울산도서관 책값 돌려주기 사업’과 정보화담당관의 ‘재난대응 웹서비스 개발’이 선정됐다. ‘울산도서관 책값 돌려주기 사업’은 울산시점조합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도서관 책값 돌려주기 사업 운영 규정을 제정해 지난 7월부터 지역서점에서 울산페이로 구매할 도서와 4주 내 울산도서관 제출 시 구매금액을 울산페이로 환불해 주는 사업이다. 정보화담당관의 ‘재난대응 웹서비스 개발’은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공적마크 재고상태 5단계 구분 제공, 태풍 발생 경로 안내사이트 연결, 지진발생시 각종 대피장소 및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알람 등을 제공한다. 장려는 생태정원과의 ‘시민과 함



김기현/기자

2020 언택트 김해 가야왕도 레이스 개최

2020 언택트 김해 가야왕도 레이스가 오는 11월 13~29일 17일간 봉하마을과 수릉원 일원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전국 2인 이상 가족 단위를 대상으로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개최식 등 일체의 집합 없이 비대면으로 진행된다.

행사를 주최·주관하는 김해시체육회는 코로나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가을철 지역관광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참가자는 봉하마을과 수릉원 2개의 권역으로 나눠 3가지 인증 미션을 수행하면 된다. 먼저, 트레킹 어플로 권역 내를 5km 이상 걸으며 권역별로 지정장소 1개소 이상을 방문해 사진인증 후 다음 관내 식당 이용 후 영수증 인증을 하면 된다. 모든 인증을 완료한 선착순 1,000명에게 3만원 상당의 지역특산물을 기념품으로 제공한다. 이처럼 관내 식당 이용과 지역특산물 제공을 통해 체면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연간 100만명에 육박하는 봉하마을 관광객을 수릉원 일대로 불러들여 가야의 뛰어난 역사적 가치를 알리는 동시에 주변의 우수한 관광자원 홍보로 다방면으로 침체된 지역관광에 생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선착순 기념품 제공 행사와 별도로 행사 참가 중에 찍은 인증사진 공모를 진행해 대상 1팀

2020 언택트 김해 가야왕도 레이스

2020.11.13.(금) ~ 11.29.(일)

대회장소
봉하마을, 수릉원

참가대상
전국 2인 이상 가족단위
※ 선착순 1,000명 기념품 지급

인증방법
선착순 1,000명 최종 선정
- 홈페이지 앱로드(모두 충족)
- 트레킹 어플 5km 달성 인증사진
- 지정장소 방문 인증사진
- 2인 이상 가족단위 단체사진만 인정
- 김해시 관내 식당 이용 영수증 인증사진

인증완료 기념품
- 3만원 상당 기념품 (신청단급 등 지역특산물)

미션방법
※ 모두 충족

레이스
5km 달성 인증(트레킹 어플)

지정장소
지정 장소 인증(원격별 1지점 이상)
- 1권역(봉하마을)
지점: 노무현 생가, 요역, 사저, 봉하산 아메이레피자상, 향방리갈대길, 화포전생태공원
- 2권역(수릉원 일원)
지점: 수릉원, 수릉원비행, 수릉원, 구지봉, 대성동고분군, 봉황동유적지

가야미션
김해(가야) 주요 음식(해) 이용 인증 (사진 이용 영수증)

사진공모전 선착순과 무관
- 대회 중 촬영사진 심사하여 최종 10팀 이상
※ 대상 1팀(50만원), 최우수상 2팀(30만원), 우수상 3팀(20만원), 장려상 4팀(10만원)

문의 055.331.7074~5

50만원, 최우수 2팀 각 30만원, 우수 3팀 각 20만원, 장려 4팀 각 10만원을 시상한다. 허성곤 김해시장은 “이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넘어 워드 코로나 시대에 접어들었다”며 “코로나를 예방하는 동시에 생활

에 활력을 불어넣어 시민들의 일상을 회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비대면 스포츠 마케팅을 적극 활용해 위기를 기회로 바꿀 것”이라고 밝혔다.

남궁영기기자

제7회 21세기 인문가치포럼, 10월 30일 개막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안전한 행사 진행 약속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 안동에서 개최되고 온라인으로 생중계되는 '제7회 21세기 인문가치포럼' 개막이 이를 앞으로 다가왔다.

30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3일간 개최되는 이번 포럼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집단행사의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개의 채널로 동시에 진행된다.

한국정신문화재단은 올해로 7회째를 맞는 이번 포럼이 기존의 개최 방식을 완전히 탈피해 모든 프로그램을 야외에서 진행함으로써 참가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으며 특히 행사 현장의 방역뿐만 아니라 참가자들의 동선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코로나19 위험을 원천 방지할 수 있는 행사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 포럼에 참가하는 모든 인원은 각각 고유의 바코드를 부여받게 되고 이를 통해 개별 행사장 참석을 엄격히 통제함으로써 단일장소에 많은 인원이 집중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한다. 각 장소별 소독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행사장을 왕래하는 모든 인원들을 대상으로 대인 소독을 진행할 수 있는 방역 터널 역시 주요 동선에 설치해 바이러스 제로 포럼 기획을 실현했다. 방역 터널은 비접촉 형태로 4단계에 걸쳐 설계되어 있으며 1단계는 소독액이 분사되는 게이팅 소독기, 2단계는 발판형 소독매트, 3단계는 마스크 착용 상태 및 체온 자동 측정 카메라, 마지막 4단계는 자동 손소독 키트로 구성되어 있다. 이

제7회 21세기 인문가치포럼

The 21st Century Human Values Forum 2020

문화 다양성시대의 사회적 가치
"Social Values in the Age of Cultural Diversity"

2020. 10. 30.(금) - 11. 1.(일)
안동시 전통리조트 구름에

개막식

2020년 10월 30일(금) 13:30

인문가치 참여, 전통리조트 구름에 전파문 여당

시간	프로그램
10:00-11:00	개막식 1
11:00-11:30	개막식 2
11:30-12:00	개막식 3
12:00-12:30	개막식 4
12:30-13:00	개막식 5

실시간 중계 시청방법

1. 홈페이지 접속 후 실시간 생중계 클릭
2. 유튜브에 '21세기 인문가치포럼' 검색

인문가치 참여, 전통리조트 구름에 전파문 여당	인문가치 학술, 전통리조트 구름에 무향각	인문가치 실천, 전통리조트 구름에 정암사당	
시간	프로그램	시간	프로그램
10:00-11:00	개막식 1	10:00-11:00	개막식 1
11:00-11:30	개막식 2	11:00-11:30	개막식 2
11:30-12:00	개막식 3	11:30-12:00	개막식 3
12:00-12:30	개막식 4	12:00-12:30	개막식 4
12:30-13:00	개막식 5	12:30-13:00	개막식 5

외에도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는 무인등록데스크 설치, 건물 출입 간 비접촉식 손소독제 비치, 개인 마스크 지급, 방역 전담 요원 지정 운영 등 최대 수준의 방역을 제공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인해 매년 5,000명을 웃돌던 포럼 참가자들의 현장 참석이 제한됨에 따라 한국정신문화재단은 역대 포럼 최초로 온라인 생중계 방식을 도입해 모든 참가자들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쉽

게 포럼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포럼 공식 홈페이지와 포럼 유튜브 공식 채널을 통해 포럼의 주요 프로그램들이 실시간 중계되며 특히 포럼 홈페이지 내에서는 접속자가 스스로 시청을 원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해 시청할 수 있게 함으로써 포럼이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가치를 쉽게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했다.

김영호기자

김천시니어클럽 "열차카페" 새롭게 단장, 놀러오이소~

'김천시 노인일자리사업의 메카'

김천시에서는 지난 6일부터 23일까지 대항면 덕전길에 위치한 김천시니어클럽 열차카페는 앞뒤표면 총 길이 100m로 총사업비 18,772천원의 예산을 투입해 래핑 교체 작업을 실시했다. 지금은 운행하지 않는 직지지역은 폐역이 되어 2013년부터 운행 중단되고 노인일자리사업장으로 운영해왔으며 직지사 및 직지문화공원을 찾으면서 거처가는 코스로 꾸준히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명소이다. 7년이란 세월이 지나 열차카페 외부표면이 노후되어 래핑교체 작업을 실시해 새롭게 단장했다. 열차카페는 커피나 음료 외에도 식사나 빙수종류가 맛있고 유명하다. 대표적인 메뉴는 통단호박 크림스프, 돈가스, 고구마 피자, 여름에는 메론빙수, 팥빙수 등으로 관광객의 맛을 사로잡고 있다. 운영시간은 월, 화요일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며 수요일부터 일요일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만 운영한다. 열차카페는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김천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하는 시장형 사업단으로서 만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일자리 장소이다. 열차카페 외에도 된장담기체험, 누룽지 제조 및 판매 사업을 운영하는 마마식품 등 22개의 다양한 사업단을 추진하고 있다. 김천시니어클럽은 "코로나 19로 사람들의 발길이 주춤해버려졌으나 빠른 시일에 새

롭게 단장해 주셔서 감사하며 열차카페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중섭 시장은 "이번 열차카페 래핑교체작업을 계기로 깨끗하고 새롭게 단장한 열차카페에 많은 김천시민과 관광객들의 좋은 추억과 휴식공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정용호기자

경북교육청, 교육부와 학부모 공감 콘서트 개최

경북교육청과 28일 옹비관에서 '기초튼튼, 마음단단, 우리 아이 첫 걸음'이라는 주제로 학부모, 교육청, 교육부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학부모 공감 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초·중·고등학교 학부모와 교육청 관계자, 교육부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온라인 채널을 통해 생중계하며 희망하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도 했다. 주요 내용은 샌드아트 기획 공연, 초등 학습안전망 관련 교육정책 소개, 명사 특강, 전문가 패널과 학부모가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 등 다채로운 내용으로 구성했다. 명사 특강은 'SBS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아동가족상담센터 이보연 소장이 '현명한 부모, 행복한 자녀'라는 주제로 토크하면서 행복한 아이로 키우는 학부모의 역할에 대해 강의했다. 토크 콘서트는 행사 참여 학부모의 사전질문과 온라인 채팅방에서의 현장질문 등을 모아, 저학년 학부모의 궁금증과 관련된 질문과 전문가 패널의 응답으로 진행했다. 전문가 패널은 임종식 교육감, 함영기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관, 이보영 아동가족상담센터 소장, 최규홍 진주교대 교수, 김병희 대구교대 안동부설초 교사 등이 참여해 전문분야별 의견을 교환했다. 아울러 경북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한글책임교육과 인공지능활용 초등수학지원시스템 등 학습지원 대책, 성장책임학년제, 놀이수업 학기제, 놀이 공간 재구조화 사업 등 저학년 학생 학교 적응 대책, 스스로

학습취급인증제, 1수업 2교사제, 맞춤형 학습지원단 등 초등 학습안전망 관련 정책들이 상세히 안내됐다. 온라인 화상강의시스템으로 참여한 초등 학교 1학년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코로나19로 등교 수업일이 적어 아이의 학교적응과 학력에 대해 걱정이 많았는데 학부모들을 위한 소통의 장 마련해 줘서 반갑고 고맙다"며 소감을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도 함께 해 초등 학습안전망과 관련한 교육부 차원의 다양한 정책 소개와 학부모 의견수렴, 토크 수확담회대 체험 등을 안내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어렵게 마련된 이번 소통의 시간이 저학년 학부모님들의 학교교육에 대한 궁금증과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송인용기자



평택 지세역 동문굿모닝힐 맘시티 2차

전북도, 국가예산 확보 힘 없는 노력

지역국회의원들과 긴밀한 협업으로 최대 예산 확보 목표

전북도가 자동차·조선 등 주력산업 체질강화와, 산업생태계 구축, 자존의식 복원 등 도정발전을 위한 내년도 국가예산사업 최대 확보를 위해 연일 힘쓰고 있다.

'21년도 국가예산은 지난 9월초 국회로 제출된 이후 10월 28일 예정돼 있는 대통령 시정연설에 이어 국회 상임위 심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며 이후 예결위심사를 거쳐 12월초 최종 확정되게 된다. 27일 전북도에 따르면 최훈 행정부지사는 국회를 찾아가 국민의힘 이용원, 더불어민주당 윤영찬의원, 열린민주당 최강욱의원 등 전북연고 국회의원과 권영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임재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채수근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조의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시영 국토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등

주요 상임위 수석전문위원을 두루 만나 내년도 중점확보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예산 반영을 건의했다. 전북도가 내년도 정부예산에 반드시 반영하기 위해 건의한 분야별 주요 사업으로는 다음과 같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동종단 이후 전북 조선산업 위기 극복과 자립역량 강화를 위해 '조선해양설치물운송인프라 구축사업', '중견·중소 전기차관련 협업기반 구축사업' 외 5개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건의했다. 기후변화에 따른 농작물 품목 선별 및 재배기술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농업기후변화대응 교육센터 건립', '스마트팜 청년창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시화로 내부개발 가속화가 기대됨에 따라, 새만금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 조성', '새만금 산업단지 기업성장센터 건립', '제25회 세계스카우트 잭버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지원도 강조했다. 한국 유학 및 실학의 시종지로서 전북의 우수한 국학자원을 발굴·보존·정리하기 위한 '전라유학진흥원 건립', 역사적인 동학농민혁명 정신가치의 계승을 위한 '동학농민혁명 부안백산성지 조성 및 세계시민의 전당' 등 5개 사업에도 적극 지원을 부탁했다.

최훈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정부예산안에 과소·미반영된 사업들이 국회단계에서 최대한 확보되어 그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역국회의원 및 전북출신 의원과의 긴밀한 협력 등 정지권과의 공조활동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도는 28일 지역국회의원, 29일 국민의힘 전북동행 국회의

원과 14개 시장군수와 의 정정책협의회 등 정치권과의 협력을 계획하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도 추진중이다.

또한, 송하진 도지사는 다시 11월 3일 10일 국회방문을 통해 예결위원장 등 예결소위원회, 국회 주요인사, 기재부 관계자를 만나 국가예산 확보활동을 지속 전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승일/기자



김제시 "별마당도서관처럼 반짝반짝길보작은도서관"



길보작은도서관은 2020년 생활SOC 작은도서관 조성지원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새단장을 마치고 지역 주민들에게 새로운 모습을 선보이게 됐다. 국비 시비 매칭으로 총 1억4천만원의 사업비 지원을 받아 무대공간과 열람공간을 같이 하고 벽면 서가배치 등 기존 딱딱한 공간에서 탈피 마치 코엑스몰에 별마당 도서관처럼 밝고 아름다운 도서관으로 변화해 작은도서관 이용자들에게 큰 만족도를 부여하고 있다. 아동부터 성인, 노인까지 편안하게 독서할 수 있는 다양한 열람실 공간과 지역 주민들이 모임이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실 공간 또한 추가로 마련하고 노후화된 장비 교체 등 이번 리모델링 사업으로 한층 더 쾌적한 공간으로 재개관 하게 됐다. 김제시 길보작은 종합사회복지관 2층에 위치한 길보작은도서관은 다양한 독서문화프로그램 진행으로 인근 지역주민에게 호응이 높은 도서관이다. 길보작은도서관장 권영세는 "길보작은도서관이 앞으로도 기존의 도서관으로 변화해 작은도서관 이용자들에게 큰 만족도를 부여하고 있다. 아동부터 성인, 노인까지 편안하게 독서할 수 있는 다양한 열람실 공간과 지역 주민들이 모임이나 교육을 받을 수

김현태/기자

정현을 시장, 국가예산 최대 목표치 확보 '사활'

28일부터 한달여간 국회심의회, 내년도 국가예산 승부처

익산시가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매주 국회를 방문하는 등 최대 목표치 달성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한다. 오는 28일 정부 시정연설을 기점으로 내년도 예산심의회 국회에서 본격화되는 중요한 시기에서 정현을 시장은 지난 27일 국회심의회 단계 첫 행보로 기획재정부를 방문했다.

이는 국회단계에서 국가예산의 증액이나 신규편성을 위해서는 기획재정부의 의견과 검토가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점을 감안해 이루어진 결정이다. 정 시장은 기획재정부 안도길 예산실장을 비롯해 예산총괄심의관, 사회예산심의관, 경제예산심의관, 복지안전예산심의관 등 예산실 핵심 간부를 찾아가 익산시 핵심사업을 미리 설명하고 국회단계에서의 협조를 구했다. 먼저 예산실장을 만나 왕궁 협업축사 매입 및 생태복원 사업을 설명하고 지역 시민 뿐 아니라 인근 지자체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며 대기와 수질이 개선되는 환경

복원 사업임을 강조했다. 이어 예산총괄심의관과 사회예산심의관의 면담에서는 도내 근로자의 최첨단 산업안전 교육장이 될 전북IOT 산업안전체험교육장 건립사업의 총사업비 증액과 백제 무왕의 탄생지의 관광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서동생가터유적정비 사업 등 신규사업이 국회심의회를 통과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경제예산심의관과 복지안전예산심의관의 만남에서는 비대면 산업의 대표주자이자 미래성장동력이 될 홀로그램산업 소재부품 실증 개발지원센터 구축사업과 장애인 평생교육 기회 확대 및 인프라 확충을 위한 익산시 발달장애인 평생학습관 건립사업을 건의했다. 이밖에도 지역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면서 국토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팽택-부여-익산 개설사업의 조기 착공과 국도 27호대체우회도로 개설 사업의 사업비 증액도 요청했다. 시는 앞으로 한달여간 정 시장을 필두로 전 간부 공무원들이 매주 국회로 출몰할 예정이며 지역구 국회의원 뿐 아니라 전북지역 의원, 지역출신 정치권 인사

까지 인맥을 총동원해 국가예산 최대치 확보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정현을 시장은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에서 국가예산 확보는 지역발전의 원동력이며 누가 먼저 발 빠르게 대응하는가에 따라 운명이 갈린다"며 "12월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매주 국회를 찾아가 반영된 사업은 끝까지 사수하고 부족한 예산은 기필코 증액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선수/기자



진안군 '2020년 양성평등주간 기념식'

여성인권 향상과 양성평등 실현 기여자 표창식 이어져

진안군은 27일 군청 강당에서 '2020년 양성평등주간 기념식'을 개최했다.

2020년 양성평등주간은 '성 평등을 향한 지금, 여기서의 한발'이라는 슬로건으로 개최했으며 현재의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성 평등을 향한 노력을 이어가자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날 기념식은 코로나 19 확산방지를 위해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해 시상식만 진행했다.

진안군수 표창은 여성권의 신장과 양성 평등한 사회 분위기 조성 등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이 있는 진안읍 고은숙 씨 등 16명에게 시상했고 도지사 표창은 한국생활개선 진안군연합회에게 돌아갔다.

또한 여성의 지위 향상과 양성평등 실현에 기여한 공이 인정받은 '한국부인회' 진안군지회와 여성의 권익 신장을 위해 노력한 김수영 씨에



게 공로패가 진안군 여성단체협의회를 위해 아낌없는 후원을 한 ㈜리치먼드자산 운영 회장 김영우 씨가 감사패를 받았다. 한은숙 진안군 여성단체협의회장은 "양성평등주간을 통해 남성과 여성이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며 일과 가정의 양립될 수 있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준성 진안군수는 "여성과 남성

모두가 평등하게 능력과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양성평등 환경조성과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오늘 이 행사가 행사로 그치지 말고 진안군이 양성평등 사회를 앞서갈 수 있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유충철/기자

정읍시, 가을 단풍철 맞아 다양한 방역 대책 선보여

발열점검소·워크루 방역소독장 등 호응

정읍시가 절정을 앞둔 단풍철을 맞아 내장산에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자 더욱 철저한 코로나 19 방역 관리에 나섰다.

시는 대표 관광지 내장산을 방문하는 탐방객들을 위해 발열점검소와 워크루 방역소독장을 운영하고 있다. 우선, 연차교와 내장산 매표소 사이에 발열 점검소를 설치해 내장산을 방문하는 모든 관광객을 대상으로 실시간 발열 체크를 하고 있다.

또한, 스트레스 완화와 신경안정에 효과가 큰 라벤더 오일을 활용한 워크루 방역소독장 2개소를 추가 운영해 내장산을 찾는 탐방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내장산을 찾은 관광객은 "단풍이 주는 아름다움과 함께 라벤더 향기로 잠시나마 코로나19로 인한 답답함에서 벗어나 기분이 상쾌해졌다"며 느낌을 전했다.

이와 함께, 관광지 방역 관리 요원 32명을 선발해 마스크 착용과 우측통행, 거리두기 등 예방수칙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또한, 감염 우려가 큰 대형버스에 대해서는 국립공원 내 주차를 금지하고 매년 제4

주차장과 제5 주차장에서 월령교까지 운행하던 셔틀버스 운행도 중단했다. 또, 내장산 집단상가지구의 식당·상가를 대상으로 비접촉식 체온계와 살균 소독제를 지급하고 전문 방역 업체를 통한 방역소독을 지속적으로 펼치며 코로나19의 지역감염과 안전한 관광 여건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유진섭 시장은 "단풍철을 맞아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많은 관광객이 내장산을 방문하고 있다"며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관광환경을 제공하고 힐링과 감동의 도시를 만들기 위해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하은/기자

'작지만 강하다' 보성군 강소농 2020 강소농대전 참가

스마트스토어, 드라이브스루 플리마켓으로 온오프라인 동시 진행

보성군은 29일부터 오는 31일까지 3일간 열리는 2020 온라인 강소농대전에 참가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강소농대전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강소농대전 홈페이지 및 유튜브 채널 '농촌진흥청'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보성군 강소농은 유튜브채널 '보성군농업기술센터'를 통해 농산물판매 홍보영상을 게시하고 스마트스토어를 활용해 농산물 판매가격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또한, 오는 30일부터는 오프라인 판매를 병행해 회원면 읍소출발하면 일원에서 보성을 찾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농산물 플리마켓을 운영하고 소비자를 위한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행사에 참여하는 강소농 채 모 씨는 "소비자들과 교류 할 수 있는 농산물판매 플리마켓을 통해 보성군의 우수한 농산물을 널리 알릴 수 있을 것"이라며 "플리마켓에 다녀가는 소비자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양동희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보성군 강소농의 역량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강소농 대전 참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보성군 강소농이 생산한 우수한 농산물을 많은 분들이 접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만/기자



전주역 앞 첫마중길, 주말 문화로 가득

전주역 앞 첫마중길이 매주 주말 불거리와 즐길거리로 가득 채워진다. 전주시와 전주문화나들이는 울연말까지 첫마중길에서 매주 주말을 활용해 프리마켓과 버스킹 등 다채로운 행사와 공연을 펼친다고 29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주말 첫마중길에서는 지역 청년 문화예술인들의 노래와 댄스 등 공연과 함께 수공예장터와 농부장터, 아나바다 장터, 체험장터, 디지털장터, 다문화장터 등 프리마켓이 펼쳐진다. 또, 각종 소품 만들기 체험교육도 진행되고 작품전시회도 열릴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오는 12월부터는 나무조명, 바닥조명, 조형물조명 등 약 4000개의 아름다운 조명

이 설치돼 산책을 나온 시민들과 관광객들의 겨울철 야간 명소로 자리매김한 '첫마중길 빛의거리' 조명도 가동기로 했다. 시는 향후에도 첫마중길에서 다양한 불거리와 즐길거리가 담긴 행사들을 지속 추진해 관광객과 젊은 층의 유입을 늘려 전주역세권 상권을 활성화시킬 방침이다. 신계숙 전주시 사회적경제지원단장은 "전주역에서 내려 전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첫 이미지를 주고 추억을 제공하는 곳이 첫마중길"이라며 "첫마중길 권역의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 사업 추진에 힘을 기울"이라고 말했다.

김승일/기자



김영록지사, '국민의힘'에 도정현안초당적 협조건의

현안사업 15건, 정책지원 8건 등 당 차원 지원 요청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27일 '국민의힘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내년 지역 현안사업 국고예산 반영과 정책지원 사항 등에 대한 당 차원의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광주광역시청 비즈니스룸에서 가진 예산정책협의회에는 국민의힘 주요영 원내대표, 이종배 정책위의장, 추경호 예결위 간사, 정운전 예결위원, 임동하 전남도당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김영록 도지사는 예산 지원사업으로 경전선 고속전철 건설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 추진 전사대교 날개 달기 바이오헬스 융복합 지식산업센터 구축 등 국회의심 단계에서 추가 반영해야 할 현안사업 15건에 대해 초당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정책 현안과 관련해 김 지사는 "전남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과 삼국 종합병원이 없어 코로나19 대처 등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며 "지난 30년간 이어진 도민들의 숙원사업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어 김 지사는 "한전공대를 글로벌 나주혁신도시에 세계 톱10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며 "과거의 카

이스트와 과거원처럼 한전공대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아울러 건의했다. 더불어 "여순사건은 경남, 대구 일원까지 확대된 현대사의 비극으로 사건 발생 72년이 지난 현재 국가 차원의 진실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과 관련해서도 "전남 전체 22개 시군 중 18개 시군이 소멸위기에 처하는 등 인구감소 문제가 매우 심각한 실정이다"며 "국비 보조율 상향, 농어촌주택 구입시 양도세 비과세 등 범국가적 지원방안을 담은 특별법 제정을 경상북도 등과 함께 추진하고 있어 특별법이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지원"을 당부했다. 이밖에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가 국제행사로 최종 승인돼 2023년도에 개최될 예정으로 전남과 경남 10개 시군이 함께 유치에 나선 만큼 여수 중심으로 남해안남중권에 개최가 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협력"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주요영 원내대표와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국비보조를 차등지원 등 지역소멸위기 지역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고 정부의 각종 정



책적 혜택이 수도권과 수도권 인접 지역에 집중되고 있다"며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이 더욱 필요하다"고 밝혔다.

추경호 예결위 간사도 "도시지역에 집중돼 있는 자본이 지방으로 분배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운전 국민의힘 국민통합위원장은 "섬진강 영호남 복합형 환승공원 조성과 같이 지자체간 공동프로젝트를 발굴해 추진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에서도 호남지역

에 예결위원을 배정해서 지역 현안사업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언급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28일부터 국회 예산심의를 시작됨에 따라 국회를 수시 방문해 지역 현안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지역 국회의원과 보좌관들과 유기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며 "예산안 처리가 종료될 때까지 국고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영록기자

해남군 "가을과 겨울이 광장에서 만났어요"

해남군민광장 '見生조각전' 국화향연 속 눈조각 이색 볼거리

국화향기 가득한 가을 속 광장에 하얀눈의 겨울동화가 펼쳐졌다.

해남 군정앞 군민광장에서 27일 눈조각 퍼포먼스가 열렸다. 눈조각은 크라운해태의 문화공헌활동으로 열리고 있는 '見生조각전'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열려놓은 20여개의 눈 볼록을 입체적인 모양으로 현장에서 즉석 조각해 완성하면서 국화향연이 열리고 있는 주변 경관과 어우러져 색다른 볼거리가 됐다.

눈 조각은 1~2일 사이에 녹아 사라지지만 견생조각전은 오는 11월

15일까지 계속된다. '보면 생명이 생긴다'는 독특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견생조각전은 현대 조각의 저변 확대를 위해 크라운해태 주관으로 2016년부터 전국의 지자체들과 함께 개최하고 있다. 전국에서 활동하는 조각가들의 이색 작품 20점을 전시하는 작품전은 해남군민광장에 전시하는 국화와 함께 어우러져 미술과 자연의 아름다운 조화를 선사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가을 국화가 만발한 광장에서 코로나19로 지친 군민들에게 자연과 예술이 어우러진 색다른 전시회로 잠시나마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양영욱기자



"남원시" "아름다운 화장실 대상공모" 수상

남원시는 행정안전부와 화장실문화시민연대에서 주최한 제22회 '아름다운 화장실 대상' 공모에 참여해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화장실문화시민연대와 함께 성숙한 대한민국 문화를 바꾼다는 취지로 1999년부터 매년 '아름다운 화장실 대상'을 선정해 왔다. 남원시가 응모한 아름다운 화장실은 세상에 하나뿐인 명품한옥 '예루원 해우소'로 남원시가 추구하는 문화와 관광도시를 지향하며 지속가능한 정체성의 강화로 도시브랜딩을 통한 한옥으로 만든 명품화장실을 상징한다. 예루원 해우소는 지리산 유람이라는 컨셉에 맞게 남원의 대표 돌레길 및 길을 따라 떠나는 여행이라는 이미지를 화장실 타일에 담아 남원의 길문화를 표현했다. 화장실 내부는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해 화장실 입구 진입로 안전바 설치, 화장실 구조 및 시설을 안내하는 점자안내판, 장애인 비상벨 설치 등 배려를 위한 공간을 마련했고 영유아를 위한 어린이 소변기 대



변기 등을 별도로 설치해 남녀노소 모든 시민이 어우르는 따뜻한 공간으로 조성했다.

이남출기자

무안 농특산물 직거래 'SRT 수서역 상생장터' 성황리에 마쳐

양파, 고구마, 황토랑 쌀 등 명품 농특산물 30여종 선보여

무안군은 지난 10월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서울 SRT 수서역에서 코로나19 피해 농어가를 돕고 지역 농특산물 판매 촉진을 위해 서울시 지역상생교류사업단과 함께 농특산물 직거래 상생장터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군은 수서역 사회적가치플랫폼 홍보관에서 8개 농가와 업체가 참여해 30여종의 지역 명품 농특산물을 선보였다.

또한 구매고객을 대상으로 지역 특산물로 구성된 사은품 증정과 경품 행사를 진행해 방문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을 돕기 위해 추진한 이번 행사에 김산 군수가 직접 참석해 관록행사와 홍보 활동을 펼쳐 지역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렸다. 군은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서울시 상생사회가 구축한 온오프라인 채널을 지역 농특산물



홍보 플랫폼으로 활용하는 등 지역농산물 판매 촉진을 위해 서울시 지역상생교류사업단과 함께 손잡고 상생협력체계 구축에 나선다. 군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지역 농산물 소비가 촉진되어 코로나19 피해

농가와 업체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지역 농수산물 판로를 개척하고 농가소득에 도움이 되도록 앞으로도 직거래장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조기석기자



김



전복



대파



울금

농수산물은 진도 것이 최고지라~

진도아리랑볼

검색



청정 농수산물 공동브랜드

영동군 숨은 헌혈왕 박영환 씨, 따뜻한 이웃사랑 돋보여

코로나에도 멈추지 않는 '헌혈 열정'. 100회 달성

충북 영동군에 주기적인 헌혈 봉사자 따뜻한 나눔으로 눈길을 끄는 이가 있다.

영동군 양강면에 거주하는 박영환 씨는 최근 대한적십자사로부터 헌혈유공자 명예장을 받았다. 이 헌혈유공자 명예장은 대한적십자사가 100회 이상 헌혈한 자에게 수여하는 훈장과 증서다. 의미있고 많은 이들에게 베풀 수 있는 일을 찾다가, 작은 실천으로도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헌혈의 매력에 푹 빠졌다.

평생을 헌혈에 참여한 영동군의 숨은 헌혈왕으로 평균 한달에 2번 정도 헌혈을 하며 꾸준한 이웃사랑 실천하고 있다.

최근에는 영동군자원봉사센터가 난치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새 생명을 불어넣고자 추진중인 헌혈증 모으기 운동에 그동안 정성껏 모아온 50매의 헌혈증을 가져가 기부



하며 특별한 나눔을 실천했다. 코로나19 여파로 혈액 부족이 국가적 문제로 대두되고 상황에서 박영환 씨의 나눔은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 박영환 씨는 영동군 공무원 출신으로 2017년 12월 심전면장으로 공직을 마무리했다. 재직 시에도 명절 때마다 소외계층을 위한 쌀 기탁 등 지속적인 나눔을 실천

하며 특별한 나눔을 실천했다. 코로나19 여파로 혈액 부족이 국가적 문제로 대두되고 상황에서 박영환 씨의 나눔은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 박영환 씨는 영동군 공무원 출신으로 2017년 12월 심전면장으로 공직을 마무리했다. 재직 시에도 명절 때마다 소외계층을 위한 쌀 기탁 등 지속적인 나눔을 실천

하며 특별한 나눔을 실천했다. 코로나19 여파로 혈액 부족이 국가적 문제로 대두되고 상황에서 박영환 씨의 나눔은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 박영환 씨는 영동군 공무원 출신으로 2017년 12월 심전면장으로 공직을 마무리했다. 재직 시에도 명절 때마다 소외계층을 위한 쌀 기탁 등 지속적인 나눔을 실천

최만식기자

2020년 제7회 형평문학상 본상, 김경인 시인 선정

지역문학상에 소설가 박주원 선정, 30일 경상대박물관서 시상

제7회 형평문학상 본상은 김경인 시인의 시집 '일부러 틀리게 진심으로'가 선정됐고 형평지역문학상은 박주원의 장편소설 '갈밭을 헤맨 고양이들'이 선정됐다.

우리 역사의 대표적인 인권운동인 진주형평운동의 정신을 계승하며 한국문학과 지역발전에 기여한 작가에게 수여하는 형평문학상은 해를 거듭할수록 문학상으로서의 위상이 높아져가고 있다.

올해 형평문학상 본상 수상자로 선정된 김경인 시인은 2001년 '문예중앙'에 '영화는 오후 5시와 6시 사이에 상영된다'와 6편의 시가 신인문학상에 당선되어 문단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시집 '한밤의 퀘트', '애들이 모든 이름을 사랑해'를 발표한 한국문단의 믿음직한 시인이다.

수상 시집인 '일부러 틀리게 진심으로'는 '형평'이 가지는 인권 운동의

기억이 김경인 버전의 마음과 꿈의 기억으로 되살아났다고 심사위원들은 평가했다.

형평지역문학상 수상자인 박주원 작가는 드라마, 동화, 수필을 쓰다가 1993년 소설로 문예지에 등단하면서 소설에 전념해 단편소설집 '마른 대궁, 달 세상으로 간 여자, 장편소설 '마고'로 돌아오다를 낸 경남의 대표적인 여류 소설가이다.

심사위원들은 형평지역문학상 수상작인 박주원의 장편소설 '갈밭을 헤맨 고양이들'은 여성주의 소설의 지역적 확장고 연대라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남다른 작품으로 본심에 오른 다섯 편의 후보작들 가운데 단연 눈에 띄는 소설이라고 평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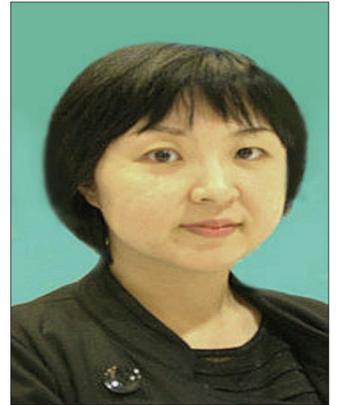
올해 형평문학상 본상 예심은 조말선 시인, 이현승 시인, 장철환 문학평론가 등 3인이 맡았고 본심은 이하석 시인, 유성호 문학평론가가 맡아 최종까지 열띤 토론을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제7회 형평문학상 시상식은 오는 30일 오후 6시 30분 경상대학교박물관 1층 대강당에서 열리며 형평문학

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2000만원과 상패, 형평지역문학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500만원과 상패가 수여된다.

한편 진주시 관계자는 "지역사회에 문학의 저변을 확대하고 시민들에게 문학정신을 키워내는 동력으로서의 형평문학의 역할에 주목하고 향후 문학계의 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몽호기자



광주그린카진흥원 제5대 김덕모 원장 선임



이사회, 김덕모 (㈜세아이엔지 고문) 제5대 그린카진흥원으로 선임

광주그린카진흥원 제5대 원장에 '김덕모' (㈜세아이엔지 고문)가 선임됐다.

그린카진흥원은 지난 26일 개최한 이사회를 열어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복수 추천한 후보자 가운데 김덕모 후보자를 참석한 이사 전원 찬성으로 진흥원 제5대 원장을 선임 의결했다.

김덕모 원장 내정자는 전남 고흥 출신으로 한양대 공과대를 졸업하고 현대차 울산공장 생산관리 업무를 시작으로 중국공장 상무이사, 기획조정실 전무이사, 홍보담당 부사장 등을 역임하면서 30년간 대외업무, 외주관리, 노무관리,

홍보까지 다양한 근무 경험을 했다. 이후, 자동차부품기업 (주)성창모텍에서 부회장을 역임했다. 원장 내정자는 산업부장관 승인과 신체검사 등 등록절차를 거친 후, 오는 11월초에 임용될 예정이다.

김덕모 원장 내정자는 "애항심과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광주미래를 위한 시정가치인 혁신, 소통, 정열을 진흥원에 구현해 조직을 쇄신하겠다"며 "앞으로 지역 미래자동차 산업육성을 위해 GGM 친환경차 전환과 위탁생산 수주 다변화를 적기에 실현하고 지역부품기업 경쟁력 강화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덕윤기자

진천군, 2020년 하반기 언론 홍보 우수직원·부서 선정

진천군이 적극적인 군정 홍보를 통해 군정발전에 기여한 공무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2020년 하반기 언론 홍보 우수직원 및 부서를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평가에서는 우수직원 2명, 우수부서 2개소를 선발했으며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진천사랑상품권이 부상으로 함께 수여된다. 특히 올해 하반기 평가부터 군정홍보 참여직원의 인센티브 확대를 위해 최우수 직원에게 공무 국외연수 기회를 제공하기로 해 공직자들의 적극적인 홍보 활동이 이어졌다.

최우수 직원에는 여성가족과 서지현 주무관이, 우수 직원에는 주민복지과 이재철 주무관이 선정됐으며 우수부서는 행정지원과와 문백면행정복지센터가 각각 선정됐다. 우수부서 및 직원은 2019년 11월부터 2020년 9월까지 문화홍보체육과에 제출한 자료 중

제공 보도자료의 충실성 시기의 적절성 군정 홍보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1차 후보군을 선발한 뒤 홍보 우수 평가위원회 회의를 거쳐 최종 결정했다. 이번 선정된 우수부서 및 직원은 오는 11월 월례회의에서 시상될 예정이다. 최우수 직원에게 주어지는 국외연수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내년 하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다. 임승혁 홍보우수 평가위원장은 "홍보우수 직원과 부서 선정에 있어 제출된 보도량도 중요하지만 눈부신 발전을 이뤄가는 군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한 자료에 높은 점수를 주도록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조직 전체로의 홍보마인드를 확산하고 군정 실천력을 제고할 수 있는 홍보자료 작성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김재형 시의원 "광진구 자양4동에 이어 화양동까지 서울형 골목길 재생사업지 선정"

700년 된 '화양동 느티나무' 명소화, 지역상권 연계 활성화

광진구가 '서울형 골목길 재생사업' 대상지로 선정됨에 따라 1980년대 노후 건축물과 불법주차 등으로 겪었던 시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형 골목길 재생사업'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등 일정 지역을 정해 '면'단위로 재생하는 기존 도시재생사업과는 달리, '선'단위를 대상으로 하는 현장밀착형 소규모 재생 사업이다. 지난 10월 23일 서울시는 2020 하반기 자치구 공모로 '서울형 골목길 재생사업' 대상지 15곳을 추가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사업지에는 각 대상 골목길마다 3년간 마중물 사업비 총 10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골목길 재생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주거환경과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것

은 물론 골목길을 중심으로 한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 주민공동체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며 다양한 재생 프로그램을 도입해 낙후된 골목길에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이다.

김재형 의원은 "지난해 자양4동 선정에 이어 이번에는 화양동 일대가 골목길 재생사업지에 선정되는 등 광진구에서 도시재생의 움직임이 활발해 지고 있어서 매우 기쁘다"며 "광진구 화양동의 700년 된 '화양동 느티나무'를 명소화하고 기존 지역 축제 및 캠퍼스 타운과 골목길을 연계해 지역 상권을 활성화시킬 예정이다"고 말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 지역 상권이 침체된 요즘 좋은 소식을 전해 드릴 수 있어서 기쁘며 자양4동에 이어 화양동 골목길 재생사업을 통해 지역 상권이 활성화 되고 지역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최광수기자



★★★★★

광명시, 2020 대한민국 도시재생 심포지엄 행정안전부장관상 수상

한국토지주택공사(LH) '도시재생 뉴딜 우수 지자체' 심포지엄 추천!

FAIR TRADE 공평무역

광명시 공정무역도시 공식 인증

- 공정무역 도시 선언 후 11개월간 공정한 소비 앞장
- 공정무역제품 판매점 목표치 3배 넘는 36개 확보
- 공정무역 활동가 양성 및 공정무역 인식 확산
- 공정무역가게 협의체 구성, 공정무역오픈박스 프로그램 운영 등

광명시는 노동력 착취, 인권 침해, 경제적 불평등, 환경오염 등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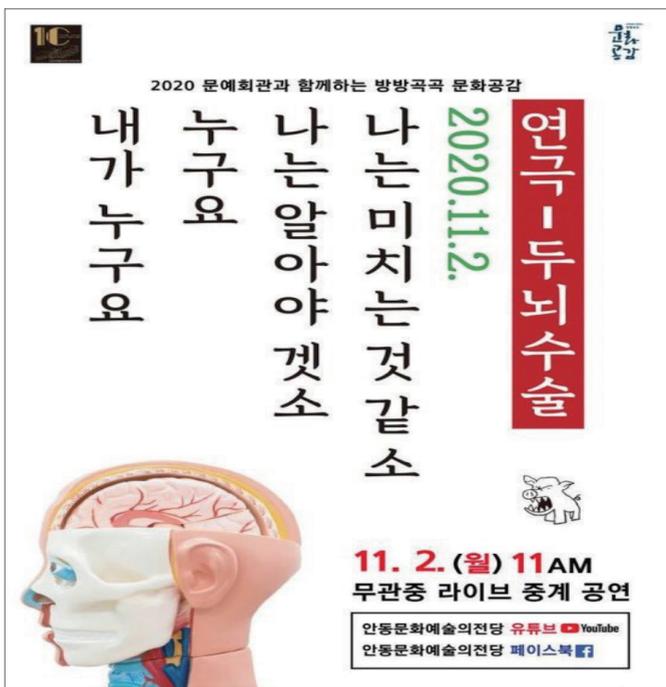
안동문화예술의전당, 무관중 라이브 중계“연극 두뇌수술”

2020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

‘연극 두뇌수술’공연이 오는 11월 2일 11시 안동문화예술의전당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온라인 무관중 라이브 중계 공연으로 진행된다.

이번 공연은 2020년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민간 예술단체 우수공연프로그램의 일환이며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최하고 안동문화예술의전당이 주관한다. 안동문화예술의전당 기획공연 ‘연극 두뇌수술’은 코로나19 확산의 장기화에 따라 위축된 문화예술 향유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대면 온라인 무관중 생중계 공연으로 진행해 많은 관람객들이 즐길 수 있도록 기획했다. 제목부터 충격적인 ‘연극 두뇌수술’은 작자 1945년 해방 직후에 발표한 희곡을 연출가 윤환술이 재해석해 올린 작품으로 2012년 대한민국 연극대상 작품상을 수상했으며 2020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예술작품상 실·올해의 레퍼토리에 선정된 연극이다.

1945년에 해방 직후를 배경으로 외과의사 오영호가 금기된 기술인 대뇌교환수술을 실시하면서 벌어지는 스토리를 시대착오적인 언어와



현대적 연출 기법을 맛물리게 표현해서 독특한 작품 분위기로 현재의 관객이 과거의 시간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경험을 통해 현재를 다

시 돌아볼 수 있는 매력을 보여줄 예정이다.

김영호기자

온가족이 함께 즐기는 저글링 서커스 드라마 ‘더 해프닝 쇼’

독보적인 저글링 퍼포먼스로 드라마가 있는 서커스 공연을 선보이는 ‘서커스 D. Lab’의 공연 ‘더 해프닝 쇼-마이 드림’이 이천아트홀에서 선보여진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온라인 무관중 공연을 꾸준히 선보이고 있는 이천아트홀에서는 오는 10월 30일 오후 7시 30분 이천시청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재미와 감동이 가득한 공연 ‘더 해프닝 쇼’를 선보인다고 전했다. 서커스 드라마 크리에이티브 ‘합서울’이 진행하는 이번 공연은 이천아트홀 ‘문화가 있는 날’로서 오후 7시 30분 이천시청 유튜브 채널에 접속한 모두가 무료로 즐길 수 있다. ‘문화가 있는 날’은 전국 문화시설의 문턱을 낮추고 국민 생활속 문화 향유를 확산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2014년 1월부터 시행한 제도로 전국의 주요 문화시설들의 자를 참여로 진행된다. 이에 이천아트홀 또한 2014년부터 매해 품격 있는 공연작품을 저렴한 가격에 선보여 왔으며 2020년 올해에는 지난 7월 ‘한태인 콘서트’를 시작으로 무관중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지역주민과 만나고 있다. 이번에 공연을 진행하는 ‘서커스 D. Lab’은 ‘서커스 드라마 연구소’의 약자로 대표 ‘합서울’을 필두로 단순한 퍼포먼스가 아닌 서커스를 배경으로 만들어지는



한 편의 드라마를 연구하는 단체이다. 서커스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자신의 몸과 저글링 도구 그리고 무대 세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오브제에 대한 탐구와 실험을 통해 전혀 새로운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다.

10월 30일 이천아트홀에서 선보여 질 ‘더 해프닝 쇼-마이 드림’은 이러한 노력으로 탄생한 ‘서커스 D. Lab’의 대표작으로 “서커스를 통해 관객에게 행복한 웃음을 선사하지만 웃는 얼굴 속에는 공허함으로 가득한 광대와 꽃으로 대변되는 광대의 꿈과 희망을 이야기 하는 공연”이다.

박상찬기자

가을밤 즐기는 근대문화 여행, ‘강경 문화재 야행’, 30일 개막

코로나 19 대비 온택트, 오프라인 프로그램 함께 진행

아름다운 가을밤에 떠나는 근대문화 여행이 오는 30일부터 강경 옥녀봉과 근대역사문화거리 일원에서 시작된다.

논산시는 오는 30일부터 온라인 ‘2020강경 문화재 야행’을 개최한다. 올해 2회를 맞는 ‘강경 문화재 야행’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택트와 오프라인 행사를 병행해 더욱 많은 볼거리, 즐길 거리를 선보일 예정이다. 온택트 행사는 오는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3일간 ‘2020 강경 문화재 야행’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진행되며 야간 문화재 관람 및 전시, 체험 등의 오프라인 프로그램은 11월 8일까지 10일간 진행된다.

랜선 관람객들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연극, 퓨전재즈, 국악, 시낭송 등의 문화예술 공연과 다양한 강경의 문화재 및 먹거리, 볼거리 등을 만끽할 수 있다. 또한, 김홍신 작가, 나태주 시인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강경이야기’, 옥녀봉 3.10만세운동과 신사참배거부운동 이야기를 각색한 연극 공연, ‘해설로 만나는 강경문화재 기행’, ‘시’를 통해 만나는 강경, ‘강경의 맛을 찾아서’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함께 중계할 예정이다



다. 또한, 근대역사문화거리 및 구락부에서는 강경의 100년 역사가 담긴 사진전시회, 지역명인과 단청작가 등 지역예술가의 작품전시회, 근대 의복·소품을 활용한 추억사진관

등 다양한 퍼포먼스를 진행해 강경을 찾은 전국의 관람객에게 아름다운 시간여행을 선사할 것으로 보인다.

고정화기자

평택시 ‘2020 평택 할러윈 축제’ 개최

‘방구석 할로윈 콘테스트’ 새롭게 기획

“올해 할러윈축제는 비대면으로 즐겨요”

전국에서 주한미군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평택에서 개최되는 ‘평택 할러윈축제’는 외국인인과 한국인이 함께 즐기고 서로의 문화를 공유하며 한미친선을 도모하는 축제로 자리 잡아오고 있다.

이번 ‘2020 평택할러윈축제’는 경기도와 평택시가 주최하고 평택국제교류재단과 평택시민신문이 주관하며 송탄상공인회, 평택국제중앙시장, 한국외국인관광시설협회 송탄지부가 함께한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프로그램인 ‘방구석 할로윈 콘테스트’를 새롭게 기획해 참가자들이 집에서 각자 할러윈 코스튬을 입고 찍은 사진을 SNS를 통해 올린, 이 중 우수작을 선정해 시상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한 참가자 범위를 평택과 인근에서 전국으로 넓혀 평택을 대표하는 축제로 발돋움하고자 한다.

참가 신청은 10월 26일부터 11월 3일까지 진행된다.

할러윈 축제를 안전하게 집에서 즐기고 싶어하는 내·외국인이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할러윈 분장 사진이나 할러윈·코스프레 영상을 본인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방구석할러윈콘테스트, #평택시국제교류재단, #평택시민신문 등의 태그를 달아야 신청이 접수된다. 심사 분야는



분장기술·아이디어·표현력·완성도 등을 심사한다. 1등 수상자에게는 상금 200만원, 2등과 3등에게는 각각 100만원과 50만원이 수여된다. 5마 유령상 등 6개 부문의 특별상 수상자에게는 각각 20만원의 상금을 준다. 참가자 중 50명을 무작위로 뽑아 1만원짜리 스타벅스 커피쿠폰도 증정한다. 시상식은 11월 16일 오후 9

시 유튜브 ‘평택시민신문’에서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평택시국제교류재단 차상돈 사무처장은 “이번 비대면 할러윈축제를 통해 코로나로 침체된 분위기를 전환시키고 새로운 한미교류 방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남주기자

3D 가족 뮤지컬 오즈의 마법사

김제문화예술회관에서는 11월 7일 오후 2시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의 일환으로 3D 가족 뮤지컬 ‘오즈의 마법사’가 펼쳐진다.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은 지역주민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문화의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후원하고 있다. 이번 공연에서는 도로시를 비롯해 북쪽 착한마녀, 양철인간, 사족 마녀 위키드, 허수아비, 겁쟁이 사자 등이 등장해 펼쳐지는 신나는 모험과 활약이 관객들을 흥미진진한 오즈의 세계로 초대한다. 또한, 토네이도가 불어 차친 도로시네 마을에서 집과 동물들이 공중으로 솟구치는 장면, 오즈의 성문이 열리는 장면들이 3D 입체 영상을 통해 생생하게 구현되어 원작이 가지고 있는 환상적이고 신비한 느낌을 증폭시켜 어린이는 물론 어른들까지도 꿈과 환상에 빠져들게 만든다. 코로나19로 심신이기 전 시민들을 위해 공연장 거리두기 객석제, 방역 소독, 발열 체크,



자가 문진표 작성 등 생활 속 거리두기 공연장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시민 안전을 도모할 예정이며 공연장을 출입하는 모든 관람객은 마스크

를 착용해야 하고 미착용 시 입장이 금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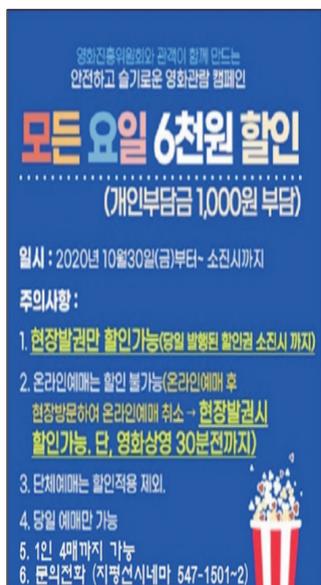
김현태기자

안전하고 즐거운 영화관람 캠페인

지평선시네마에서 천원에 영화를 즐기세요~

김제 지평선시네마는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 시행에 따라 오는 10월 30일부터 극장과 관객이 함께 만드는 안전하고 즐거운 영화관람 2차 캠페인 ‘일상 속 영화두기’의 시작으로 모든영화 6천원 할인권을 제공한다. 지평선시네마는 작은영화관으로 6천원할인을 적용하지만 관람 요금이 6천원 이하로 책정된 경우 관객 최소 결제금액 천원을 부담해 실질적으로 5천원을 할인받고 천원에 영화 관람이 가능하다. 할인권은 현장발권을 할 경우에만 적용이 되고 온라인 예매를 한 경우는 영화상영 30분전에 현장에 와서 취소하고 다시 현장발권을 받아야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영화 할인혜택은 다수의 시민들이 즐기고 감상할 수 있도록 1인 4매까지 가능하며 예상이 소

진될 때까지 천원에 영화관람이 가능하다. 지평선시네마는 상영관 입장시 발열 체크, 극장내 좌석간 거리두기, 등 세심한 방역 활동을 통해 안전한 관람 환경을 조성하는 데 현재까지도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5천원 할인을 통한 영화 관람의 기회를 제공해 한국 영화 산업의 회복세가 이루어 질 수 있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영화산업발전에 노력하고 있다. 김제시는 “영화진흥위원회와 관객이 함께 만드는 안전하고 즐거운 영화관람 캠페인의 일환인 영화관 입장료 6천원 할인권 이벤트의 재개와 함께 국내외 다양한 영화 개봉소식이 전해지는 가운데 한국 영화 산업의 회복세가 계속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며 천원에 영화 관람을 즐길 수 있는 특별한 기회이므로 많은 시민이 즐기고 영화관람에 불편하지 않도록 관람 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현태기자

동부 중소유통물류센터 이전 건립 기공식 개최

중소상공인들의 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동부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가 동래구 안락동에서 금정구 금사동으로 이전된다. 부산시는 오늘 오전 11시, 동부 중소유통물류센터 이전을 위한 기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공식에는 이윤재 부산시 민생노동정책관을 비롯해 도용희 시의회 기획재정위원장과 자영업자, 협력업체 대표 등 30여명이 참석한다.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는 중소유통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상품의 보관·배송·포장 등 공동물류사업 상품의 기획·개발 및 공동구매, 전시 유통물류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정보의 수집·가공·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특히 유통단계 축소를 통해 물류비를 최고 30%가량 절감하고 있다.



부산시는 동부슈퍼마켓협동조합과 함께 중소 슈퍼마켓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물류센터 건립을 추진했으며 동부 물류센터부지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구역으로 편입되자 총사업비 85억원으로 물류센터 이전을 추진해왔다. 새로운 물류센터는 금사역에서 50m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해 시민들의 접근성이 증대할 것으로 예상

된다.시는 올 연말 완공을 목표로 이전을 추진하고 내년 1월부터 운영에 들어갈 방침이다. 부산시는 지속적인 시장조사를 통해 중소 슈퍼마켓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 시민들에게 저렴한 양질의 물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금정구·동래구·연제구를 비롯한 부산 전 지역 도소매점 등을 대상으로 회원제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남궁영기/기자

동해천곡 고령자복지주택 사업설명회 개최

동해시는 오는 29일 오전 10시 평생학습관 대강당에서 2020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추진 중인 '동해천곡 고령자복지주택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동해시,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관계 기관 및 노인, 청년, 여성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생활 속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준수한 상태로 진행된다. 설명회는 그동안의 사업 추진 경과와 기본계획 설명으로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향후 실 수요자인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장한조 허가과장은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준비하는 공모사업인 만큼 고령자복지주택이 전 주민과 시민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전국 최고의 단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LH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최만식/기자



아산시 '온양5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 순조로운 진행

주민참여형, 햇살을 가득 드리운 복합청사로 건립

아산시가 2022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온양5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후 된 온양5동 행정복지센터를 철거하고 기존 행정복지센터 공간에 신청사 건립을 추진 중이다. 지하1층, 연면적 2,314㎡의 행정복지센터와 지상3층, 연면적 1,237㎡의 40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조성할 예정이다.

온양5동 행정복지센터 건축설계 공모에 당선된 ㈜건축사사무소 티오피는 지난 4월 28일 설계용역에 착수해 현재 실시설계 진행 중으로 주민친화형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지역 주민이 참여한 설계 서포터즈를 운영 중이다. 주요시설로 행정복지센터, 주민자치센터, 중대본부, 주차타워가 들어갈 예정으로 기존 노후화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과 협소한 주차공간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행정서비스와 더불어 문화센터와 주차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온양5동 행정복지센터를 건립해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는 새로운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정화/기자



순천시,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 기준 완화

신청대상 완화·서류 간소화, 11월 6일까지 신청기간 연장

순천시는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해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 기준을 완화한다. 주요 변경사항은 신청가능 대상을 소득 감소 폭과 상관없이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대상으로 확대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고려해 객관적 증빙자료 제출 시 소득감소 신고서를 생략하고 객관적 자료 입증이 불가능하면 본인 소득감소 신고서를 인정하는 등 신청서류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이면서 재산 3억 5천만원 이하 가구라면 오는 11월 6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고 지원금액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100만원이다.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이면서 재산 3억5천만원 이하 가구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중위소득 75%	1,318	2,244	2,903	3,562	4,221	4,880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이상
금액	400	600	800	1,000

단, 국민기초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대상자, 타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대상가구, 공무원과 공공일자리 참여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저소득층의 긴급생계지원을 위해 상황을 운영하고 완화된 기준과 신청 간소화 등을 홍보해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남출/기자

강동구, 이케아코리아 사업설명회 개최

강동구가 지난 27일 구청 제2청사 중회의실에서 이케아코리아-JK미래 컨소시엄 기업 관계자와 이정훈 강동구청장을 비롯한 관련 부서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10월 이케아코리아-JK미래 컨소시엄은 강동구 고덕비즈벨리 내 유통판매시설용지 1블록 사업자로 선정됐으며 현재 건축심의 등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향후 이케아코리아를 비롯해 영화관, 쇼핑몰, 오피스 등으로 구성된 대형복합시설로 개발될 예정으로

2021년 상반기 착공, 2024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시설 구성 및 운영 계획과 지역사회 기여 방안 등에 대해 협의하고 향후 사업추진 일정 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동부수도권을 대표하는 상업업무 복합시설로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끄는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사업이 초기에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광수/기자



‘동대구더센트로 데시앙’ 10월 30일 오픈

역세권 초품아에 풀사이즈 농구코트 실내체육관까지

태영건설이 동구 신암동 451-1번지 일원에 공급하는 ‘동대구더센트로 데시앙’이 10월 30일 모델하우스를 공개하고 분양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9월 22일부터 대구 전 지역에 전매규제가 실시된 후 수성구를 제외한 첫 분양으로, 향후 대구 분양 시장의 분위기를 읽을 수 있는 잣대로 더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단지는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전용 59~84㎡ 중소형 860가구 대단지로,

타입별로 보면 전용 59㎡ 191가구, 74㎡A 186가구, 74㎡B 55가구, 84㎡A 312가구, 84㎡B 116가구로 구성된다.

‘동대구더센트로 데시앙’은 1호선 신천역을 도보로 누릴 수 있으며 KTX-SRT 동대구역이 가까워 도시철도와 광역철도의 멀티역세권을 자랑한다. 신천대로와 동로를 비롯한 사통팔달 도로망을 갖추고 있으며 신세계백화점, 현대아울렛, 중앙로 롯데백화점이 가까운 몰세권으로 원도심의 풍부한

인프라도 가까워서 편하게 누릴 수 있다.

쾌적하게 정비된 단지 인근 신천수변공원의 그린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으며 수성구의 수준 높은 학원가도 비교적 가깝게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하나 ‘동대구더센트로 데시앙’이 지역 실수요자들의 관심을 끄는 이유는 초품아 프리미엄이다. 바로 옆에 동신초가 위치해 큰 길을 건너지 않고 안전한 등하교가 가능하며 더 빠르고 안전한

등하교길 조성을 위해 초등학교와 연결되는 보행자 전용 출입구와 엘리베이터도 설치할 예정이다.

전매규제로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수요가 빠지고 실수요자들에게 기회가 돌아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동대구더센트로 데시앙’은 실수요자들의 요구에 맞춘 특별한 커뮤니티를 선보인다.

풀사이즈의 농구코트를 갖춘 실내체육관과 골프연습장, 피트니스 등의 건강 커뮤니티는 물론 야외놀이터와

연계된 별동 어린이집, 아이와 엄마가 함께 즐기는 실내놀이터 플레이클럽과 맘스카페가 마련된다.

단지 디자인특화도 눈여겨 볼만하다. ‘동대구더센트로 데시앙’은 지상에 차가 없는 공원 단지로 쾌적한 환경은 물론 보행자의 안전까지 확보했다.

각 세대에는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 유입을 방지하는 현관 에어클리닝 시스템을 도입하여 더욱 쾌적한 주거공간을 연출하며, 맞통풍

구조의 4베이4룸 평면을 일부세대에 적용했다. 집 안의 다양한 기능을 음성으로 제어하는 음성인식 월패드 ‘하이 데시앙’도 적용된다. 아파트 견본주택은 동구 신암동 219-4번지에 10월 30일 오픈으로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견본주택 공개관람은 사전예약을 통해 진행할 예정이다.

박류석/대기자



동대구더센트로 데시앙